

# OECD Health Statistics 2016



# CONTENTS

## I 건강상태 12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 의한 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
7. 자살에 의한 사망률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 II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46

9. 주류 소비량
10. 흡연인구 비율
11.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 III 보건의료자원 60

12. 총 병원병상
13. 급성기의료 병원병상
14. 임상 의사
15. 임상간호사
16. CT 스캐너
17. MRI 장비
18. 의학계열 졸업자

## IV 보건의료이용 82

19. 의사의 외래진료
20. 치과의사의 외래진료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22. 재왕절개 건수
23. 신장이식 건수

## V 보건의료비용 98

24. GDP대비 경상의료비
25.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율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등 지출 비율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

## VI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114

29. 의약품 소비량
30. 의약품 판매액

## VII 장기요양 122

31. 장기요양병상(침상)수

## OECD Health Statistics 2016 요약표 : 2014년 기준\*

\* 본 자료는 각 국가의 통계작성 사정에 따라 2014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됨

구분		한국	OECD 평균	최대	최소		
건강 상태	1. 기대수명(년)	82.2	80.8	83.7	일본	74.8	멕시코
	2. 영아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명)	3.0	4.0	12.5	멕시코	1.8	슬로베니아
	3. 암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178.9 <sup>[13]</sup>	203.4	287.3	헝가리	113.1 <sup>[13]</sup>	멕시코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71.6 <sup>[13]</sup>	61.6	113.5	슬로바키아	36.1 <sup>[13]</sup>	프랑스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38.0 <sup>[13]</sup>	108.1	297.0	슬로바키아	35.4 <sup>[13]</sup>	일본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70.0 <sup>[13]</sup>	65.9	110.1 <sup>[13]</sup>	영국	26.3	핀란드
	7. 자살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28.7 <sup>[13]</sup>	11.8	28.7 <sup>[13]</sup>	한국	2.6 <sup>[13]</sup>	터키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32.5	69.6	91.4	뉴질랜드	32.5	한국
보건의 비의료 결정 요인	9. 주류 소비량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순수알코올 리터)	9.0	9.0	12.2 <sup>[11]</sup>	오스트리아	1.5	터키
	10. 흡연인구 비율(15세 이상 인구, %)	20.0	18.6	27.3	그리스	7.6 <sup>[15]</sup>	멕시코
	11.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30.8	57.3	71.3 <sup>[12]</sup>	멕시코	24.7	일본
보건 의료 자원	12. 총 병원병상(인구 1,000명당)	11.7	4.7	13.2	일본	1.6	멕시코
	13. 급성기외과 병원병상(인구 1,000명당)	6.4	3.6	7.9	일본	1.6	멕시코
	14. 임상익사(인구 1,000명당)	2.2	3.3	5.1	오스트리아	2.2	한국 · 멕시코
	15. 임상간호사(인구 1,000명당)	5.6	9.6	17.6	스위스	2.7	멕시코
	16. CT 스캐너(인구 100만 명당)	37.1	25.6	107.1	일본	5.9	멕시코
	17. MRI 장비(인구 100만 명당)	25.7	15.7	51.7	일본	2.3	멕시코
	18. 의학계열 졸업자(인구 10만 명당)	8.2	11.4	21.9	아일랜드	0.0	룩셈부르크
	19. 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14.9	7.0	14.9	한국	2.6	멕시코
보건 의료 이용	20. 치과외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1.5	1.1	3.2 <sup>[13]</sup>	일본	0.0 <sup>[12]</sup>	포르투갈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일)	16.5	7.2	16.5	한국	3.6	멕시코
	22. 제왕절개 건수(출생아 1,000명당)	367.8 <sup>[13]</sup>	264.7	511.3	터키	157.7	핀란드
	23. 신장이식 건수(인구 10만 명당)	3.6	3.6	5.8	스페인	0.0	룩셈부르크
	24. GDP대비 경상의료비(%)	7.1	9.1	16.6	미국	5.1	터키
보건 의료 비용	25. 경상의료비 중 정부 · 의무가입보험자원 비율(%)	56.5	73.1	85.1	노르웨이	49.3	미국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	36.8	19.6	40.8	멕시코	7.0	프랑스
	27. 경상의료비 중 약품 등 지출 비율(%)	20.6	15.9	30.2	헝가리	6.7	덴마크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US\$ PPP)	2,361	3,689	9,024	미국	990	터키
	30. 의약품 총 판매액(1인당 US\$ PPP)	532.2	424.2	644.4	벨기에	150.0	뉴질랜드
장기 요양	31. 장기요양병상(침상)수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57.2	49.4	72.1	벨기에	6.9	터키

## 주요내용(요약)

본 책자는 OECD가 2016년 6월말 공표한 보건지표(Health Statistics 2016) 중 주요 주요지표를 추출하여, 업무상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2014년을 기준(일부 제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health>)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2년으로 OECD 평균 기대수명(80.8년)보다 1.4년 긴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8년이 증가하여, OECD 평균 증가 수준(1.3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3.7년을 기록하였으며, 스페인(83.3년)과 스위스(83.3년)가 뒤를 이었음
  - 이와 반대로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국가는 멕시코(74.8년)와 헝가리(75.9년) 순으로 나타남
-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7명(2013년)으로 OECD 평균(11.8명)에 비해 16.9명 높았음
  -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2.6명, 2013년)와 그리스(4.2명, 2012년)이며, 일본(18.7명, 2013년)은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함

-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흡연율은 20.0%로 OECD 평균(18.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여성 흡연율(4.0%)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3.6%, 2015년)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36.6%)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37.3%,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그리스(27.3%)가 가장 높은 흡연율을 기록하였으며, 멕시코(7.6%, 2015년)는 흡연율이 가장 낮았음
  - 2009년과 2014년 사이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흡연율이 변동이 없거나 줄어들었음
- 총 병원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1.7병상으로 OECD 평균(4.7병상)보다 2.5배 많음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5년간 총 병원병상수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1.4배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인구 1,000명당 총 병원병상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13.2병상)이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총 병원병상수가 많았음

- **임상의사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3.3명)보다 1.1명 적으며,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임상의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5.1명을 기록하였으며,
- 우리나라는 멕시코(2.2명), 폴란드(2.3명), 일본(2.4명)과 함께 임상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2.5명 미만으로 낮음

- **임상간호사수(간호조무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5.6명으로 OECD 평균 (9.6명)보다 4.0명 적음

- OECD 회원국 중 스위스(17.6명), 노르웨이(16.9명), 덴마크(16.5명, 2013년), 아이슬란드(15.3명)는 인구 1,000명당 15명 이상의 많은 간호 인력을 확보함
- 간호 인력이 적은 국가로는 멕시코(2.7명), 그리스(3.2명), 이스라엘(4.9명)로 5명 미만의 적은 간호 인력수를 기록함

-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9회로 OECD 평균(7.0회)보다 2.1배 많음**

- 2009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2.9회로 5년간 2.0회 늘어난 반면, OECD 평균은 2009년 6.7회에서 2014년 7.0회로 증가함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의사의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12.8회(2013년)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진찰 횟수를 기록하였음

-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환자 1인당 입원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머무르는 일수의 평균)**는 16.5일로 OECD 회원국 평균(7.2일)보다 2.3배 길

- 한국 외에 평균병원재원일수가 10일 이상인 국가는 핀란드(10.5일)가 있음
-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가 가장 짧은 국가는 멕시코(3.6일)와 터키(4.0일)가 5일 미만으로 나타남

-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7.1%로 OECD 회원국 평균(9.1%)보다 낮음

- 2009년에 비해 2014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경상의료비는 0.8%p 증가하여,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0.1%p)보다 높은 증가폭을 기록함
- 우리나라의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GDP대비 경상의료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16.6%)으로 나타남

-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율은 56.5%로 OECD 회원국 평균(73.1%)보다 낮음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의 지출 비중이 2010년에는 59.1% 까지 증가하였으나, OECD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함

####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율(%)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 국	58.5	58.6	58.2	59.0	59.1	58.3	57.0	56.6	56.5
OECD 평균	71.8	71.9	72.8	73.7	73.5	73.5	73.0	72.7	73.1

-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85.1%), 독일(84.6%), 일본(84.6%) 순으로, 10개 국가가 8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 (49.3%)으로 50% 미만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57.2개로 OECD 평균(49.4개)보다 다소 높음
  -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2009년(34.3개) 대비 5년 사이 1.7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반대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0.5병상 줄어듦
  - 장기요양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벨기에(72.1개, 2012년)로 나타남

## 제 I 장 건강상태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 의한 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
7. 자살에 의한 사망률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 I. 건강상태



## 1. 기대수명\*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2년으로 OECD 평균 기대수명(80.8년)보다 1.4년 긴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8년이 증가하여, OECD 평균 증가 수준(1.3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3.7년을 기록하였으며, 스페인(83.3년)과 스위스(83.3년)가 뒤를 이었음
  - 이와 반대로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국가는 멕시코(74.8년)와 헝가리(75.9년) 순임
- 최근 수십 년 동안 OECD 회원국에서 기대수명은 상당히 증가하였음
  - 기대수명 증가의 배경 요인으로는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생활수준과 생활양식 및 교육수준의 향상,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와 의약품의 효율성 개선 등이 있음

\* 제시된 전체는 남·여 기대수명의 평균치임

〈표 1〉 기대수명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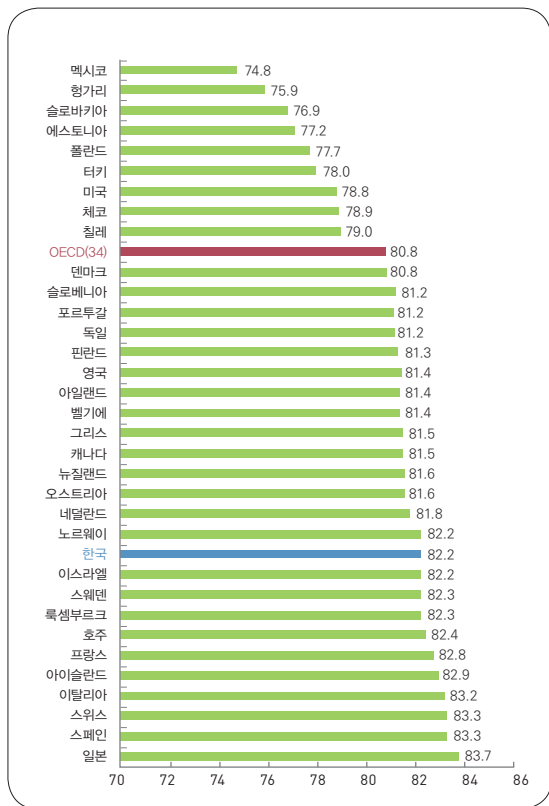
	2009			2014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81.6	79.3	83.9	82.4	80.3	84.4
오스트리아	80.4	77.6	83.2	81.6	79.2	84.0
벨기에	80.1	77.3	82.8	81.4	78.8	83.9
캐나다	80.9	78.5	83.0	81.5 <sup>2</sup>	79.4	83.6 [2012]
칠레	78.2	75.3	81.1	79.0	76.4	81.6
체코	77.4	74.3	80.5	78.9	75.8	82.0
덴마크	79.0	76.9	81.1	80.8	78.7	82.8
에스토니아	75.2	70.0	80.3	77.2	72.4	81.9
핀란드	80.1	76.6	83.5	81.3	78.4	84.1
프랑스	81.5	78.0	85.0	82.8	79.5	86.0
독일	80.3	77.8	82.8	81.2	78.7	83.6
그리스	80.4	77.5	83.3	81.5	78.9	84.1
헝가리	74.4	70.3	78.4	75.9	72.3	79.4
아이슬란드	81.8	79.8	83.8	82.9	81.3	84.5
아일랜드	80.3	77.8	82.7	81.4	79.3	83.5
이스라엘	81.5	79.6	83.3	82.2	80.3	84.1
이탈리아	81.7	79.1	84.3	83.2	80.7	85.6
일본	83.0	79.6	86.4	83.7	80.5	86.8
<b>한국</b>	<b>80.4</b>	<b>77.0</b>	<b>83.8</b>	<b>82.2</b>	<b>79.0</b>	<b>85.5</b>
룩셈부르크	80.7	78.1	83.3	82.3	79.4	85.2
멕시코	74.0	71.1	76.9	74.8	72.1	77.5
네덜란드	80.8	78.7	82.9	81.8	80.0	83.5
뉴질랜드	80.7	78.7	82.6	81.6	79.8	83.4
노르웨이	81.0	78.7	83.2	82.2	80.1	84.2
폴란드	75.9	71.6	80.1	77.7	73.7	81.7
포르투갈	79.7	76.5	82.8	81.2	78.0	84.4
슬로바키아	75.3	71.4	79.1	76.9	73.3	80.5
슬로베니아	79.3	75.9	82.7	81.2	78.2	84.1
스페인	81.9	78.8	85.0	83.3	80.4	86.2
스웨덴	81.5	79.4	83.5	82.3	80.4	84.2
스위스	82.3	79.9	84.6	83.3	81.1	85.4
터키	74.1	71.7	76.5	78.0	75.3	80.7
영국	80.4	78.3	82.4	81.4	79.5	83.2
미국	78.5	76.0	80.9	78.8	76.4	81.2
<b>평균(34)</b>	<b>79.5</b>	<b>76.7</b>	<b>82.3</b>	<b>80.8</b>	<b>78.2</b>	<b>83.4</b>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의 전체 기대수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OECD 산출방식에 맞춰 직접 계산한 수치임

[그림 1-1] 기대수명 (전체),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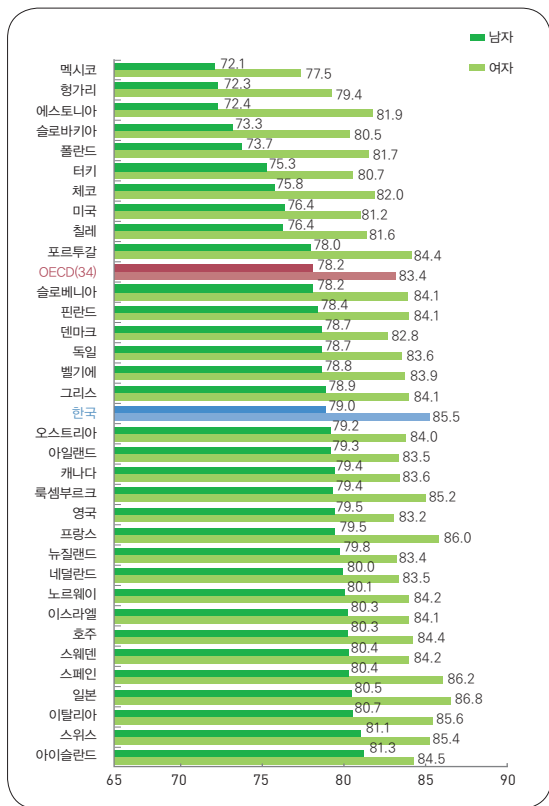
(단위: 년)



-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의 전체 기대수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OECD 산출방식에 맞춰 직접 계산한 수치임

[그림 1-2] 성별 기대수명 (남자, 여자), 2014년

(단위: 년)



-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2012)



## 2. 영아사망률\*

-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0명으로 OECD평균(4.0명)보다 1.0명 낮음
  - 지난 5년간 0.2명(2009년: 3.2명 → 2014년: 3.0명) 줄어 들었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도 4.4명에서 4.0명으로 줄어 들었음
- OECD 회원국 중 슬로베니아(1.8명)는 출생아 1,000명당 영아 사망률이 2.0명 미만으로 가장 낮았음
  - OECD 회원국 중 12개 국가에서 출생아 1,000명당 영아 사망률이 3.0명 미만으로 나타남
  - 멕시코는 영아사망률이 12.5명을 기록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의 수로, 국가의 보건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임

〈표 2〉 영아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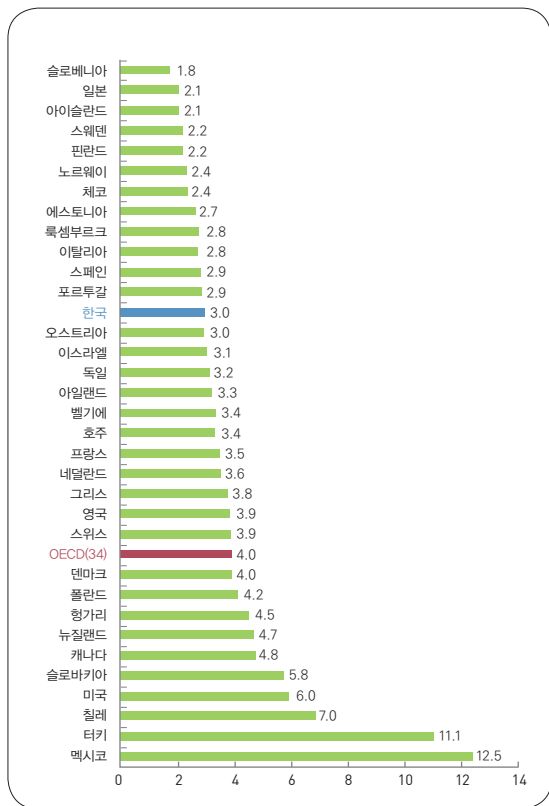
(단위: 명/출생아 1,000명)

	2009	2014
호주	4.2	3.4
오스트리아	3.8	3.0
벨기에	3.5	3.4
캐나다	4.9	4.8 [2012]
칠레	7.9	7.0 [2013]
체코	2.9	2.4
덴마크	3.1	4.0
에스토니아	3.6	2.7
핀란드	2.6	2.2
프랑스	3.9	3.5
독일	3.5	3.2
그리스	3.1	3.8
헝가리	5.1	4.5
아이슬란드	1.8	2.1
아일랜드	3.3	3.3
이스라엘	3.8	3.1
이탈리아	3.2	2.8
일본	2.4	2.1
<b>한국</b>	<b>3.2</b>	<b>3.0</b>
룩셈부르크	2.5	2.8
멕시코	14.6	12.5
네덜란드	3.8	3.6
뉴질랜드	5.2	4.7 [2013]
노르웨이	3.1	2.4
폴란드	5.6	4.2
포르투갈	3.6	2.9
슬로바키아	5.7	5.8
슬로베니아	2.4	1.8
스페인	3.2	2.9
스웨덴	2.5	2.2
스위스	4.3	3.9
터키	13.7	11.1
영국	4.5	3.9
미국	6.4	6.0 [2013]
<b>평균'(34)</b>	<b>4.4</b>	<b>4.0</b>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2-1] 영아사망률, 2014년

(단위: 명/출생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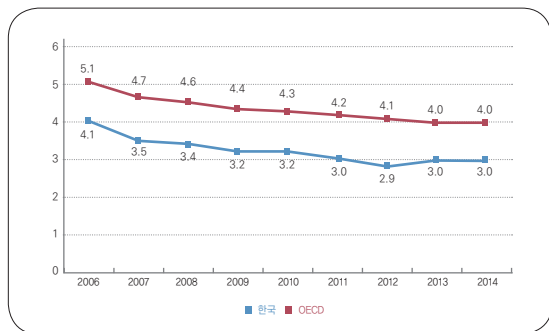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2012), 칠레(2013), 뉴질랜드(2012), 미국(2013)

[그림 2-2] 연도별 영아사망률, 2006~2014년

(단위: 명/출생아 1,000명)



주) OECD 평균: 34개국 기준, 각 해당년도 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 3. 암에 의한 사망률

- 우리나라의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78.9명(2013년)으로 OECD 평균(203.4명)에 비해 낮은편임
  - 2009년 193.8명에서 2013년 178.9명으로 14.9명 줄어듦
  - 2009과 2014년 사이 OECD 회원국 평균 암 사망률은 7.4명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감소폭 보다 적었음

\* 연령표준화 사망률(Age-standardized death rate): 국가 간 또는 시계열에 의하여 생기는 연령구조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OECD 표준 인구구조로 표준화하여 산출한 사망률

$$\text{연령표준화 사망률} = \frac{\sum(\text{연령별 사망률} \times \text{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text{표준인구}}$$

- 우리나라 남성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9.6명(2013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267.3명에 비해 높은 반면, 여성의 암 사망률은 116.3명(2013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여성 암 사망률 160.0명에 비해 낮았음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의 암 사망률은 여성의 암 사망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암 사망률의 남·녀 차이는 2.4배(2013년)로 터키(2013년)와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에스토니아 2.2배 순으로 나타남. 멕시코(2013년)는 남·녀 차이가 1.2배로 가장 낮았음

〈표 3〉 전체 암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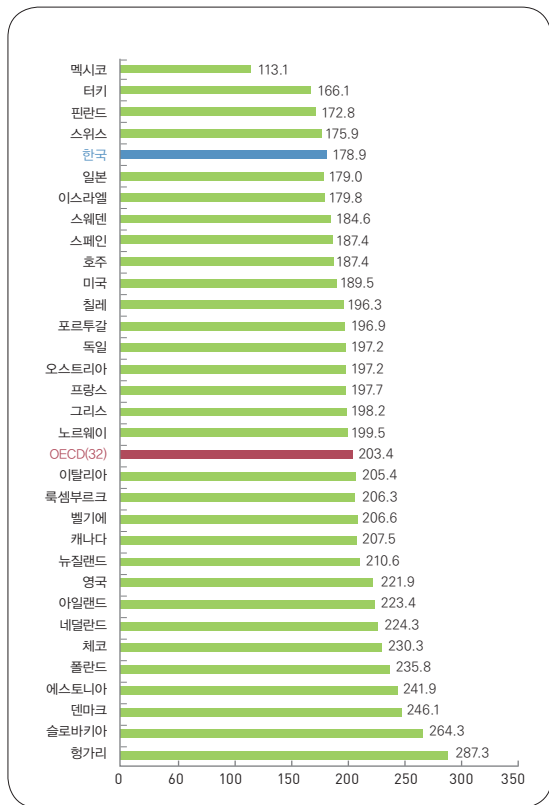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2009			2014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200.8	257.1	158.3	187.4	232.1	151.8
오스트리아	206.8	273.2	163.6	197.2	250.1	161.2
벨기에	216.4	289.7	166.6	206.6	271.2	161.0 [2013]
캐나다	214.6	260.9	181.9	207.5	248.7	177.9 [2011]
칠레	206.5	258.8	172.3	196.3	244.5	164.3 [2013]
체코	253.1	345.0	191.5	230.3	309.7	177.4
덴마크	248.9	298.2	216.9	246.1	293.3	214.4 [2012]
에스토니아	237.4	373.5	171.6	241.9	376.4	174.6
핀란드	176.9	232.2	143.2	172.8	219.7	142.1
프랑스	212.0	299.7	149.5	197.7	271.5	143.5 [2013]
독일	207.0	267.2	165.9	197.2	249.2	159.4
그리스	203.3	274.8	145.2	198.2	272.6	138.8 [2012]
헝가리	295.5	417.4	218.0	287.3	394.5	219.0
아이슬란드	209.3	257.9	175.0	-	-	-
아일랜드	242.5	308.2	196.3	223.4	267.7	191.9 [2013]
이스라엘	186.2	216.8	164.1	179.8	205.2	160.6 [2013]
이탈리아	210.6	286.7	158.7	205.4	276.9	156.0 [2012]
일본	186.1	267.3	129.6	179.0	253.9	126.4 [2013]
<b>한국</b>	<b>193.8</b>	<b>304.1</b>	<b>125.2</b>	<b>178.9</b>	<b>279.6</b>	<b>116.3 [2013]</b>
룩셈부르크	215.2	281.8	174.6	206.3	283.6	153.1
멕시코	120.9	137.4	110.4	113.1	128.1	103.2 [2013]
네덜란드	239.3	309.5	193.4	224.3	281.1	186.2 [2013]
뉴질랜드	216.5	256.6	187.1	210.6	250.9	180.3 [2012]
노르웨이	208.5	264.0	172.3	199.5	245.3	168.8
폴란드	251.8	357.0	186.6	235.8	327.4	179.0
포르투갈	198.3	280.5	140.1	196.9	278.3	137.6
슬로바키아	246.1	349.0	180.7	264.3	380.8	194.0
슬로베니아	258.2	370.1	190.3	-	-	-
스페인	197.8	288.3	130.8	187.4	268.0	126.9
스웨덴	192.8	232.6	167.1	184.6	219.1	161.4
스위스	183.2	240.0	145.4	175.9	228.3	140.0 [2013]
터키	147.5	218.0	93.3	166.1	246.4	104.4 [2013]
영국	228.5	279.8	193.0	221.9	268.5	188.7 [2013]
미국	199.5	244.7	168.1	189.5	230.6	160.3 [2013]
<b>평균<sup>1)</sup>(32)</b>	<b>210.8</b>	<b>280.3</b>	<b>164.4</b>	<b>203.4</b>	<b>267.3</b>	<b>160.0</b>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3-1) 암의 연령별표준화 사망률 (전체),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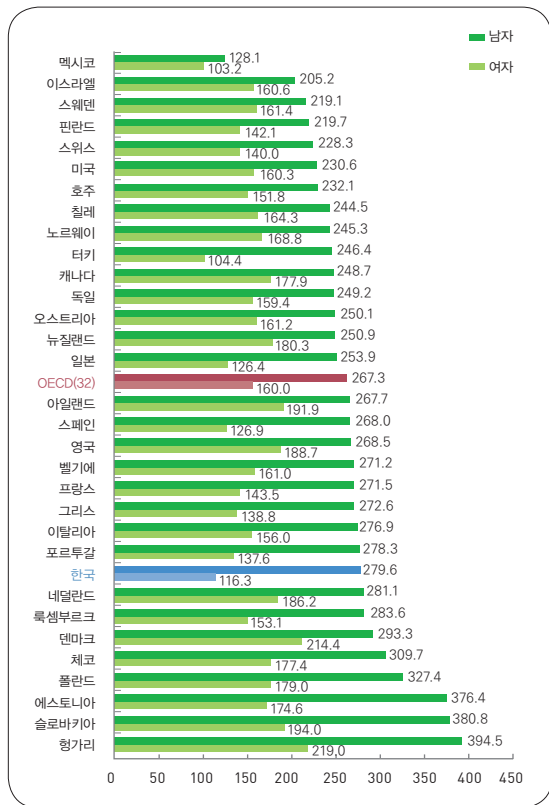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벨기에(2013), 캐나다(2011), 칠레(2013), 덴마크(2012), 프랑스(2013),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3), 이스라엘(2013), 이탈리아(2012), 일본(2013), 한국(2013), 멕시코(2013), 네덜란드(2013), 뉴질랜드(2012), 스위스(2013), 터키(2013), 영국(2013), 미국(2013)

(그림 3-2)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남자, 여자), 2014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벨기에(2013), 캐나다(2011), 칠레(2013), 덴마크(2012), 프랑스(2013),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3), 이스라엘(2013), 이탈리아(2012), 일본(2013), 한국(2013), 멕시코(2013), 네덜란드(2013), 뉴질랜드(2012), 스위스(2013), 터키(2013), 영국(2013), 미국(2013)

##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 우리나라의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71.6명(2013년)으로 OECD 평균(61.6명)에 비해 높음
  - 2009년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87.8명으로, 지난 4년간 18% 정도 감소하였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OECD 회원국의 평균 뇌혈관질환 사망률도 18% 감소함
-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나타냄. 프랑스는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6.1명(2013년)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가장 높은 슬로바키아(113.5명)의 31.8% 수준에 불과했음
  - 슬로바키아(113.5명), 헝가리(111.7명), 그리스(105.9명, 2012년), 터키(100.8명, 2013년) 등의 국가는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100명 이상으로 높은 반면, 프랑스(36.1명, 2013년), 스위스(37.2명, 2013년), 캐나다(37.8명, 2011년), 이스라엘(39.7명, 2013년)은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40명 미만으로 낮았음

〈표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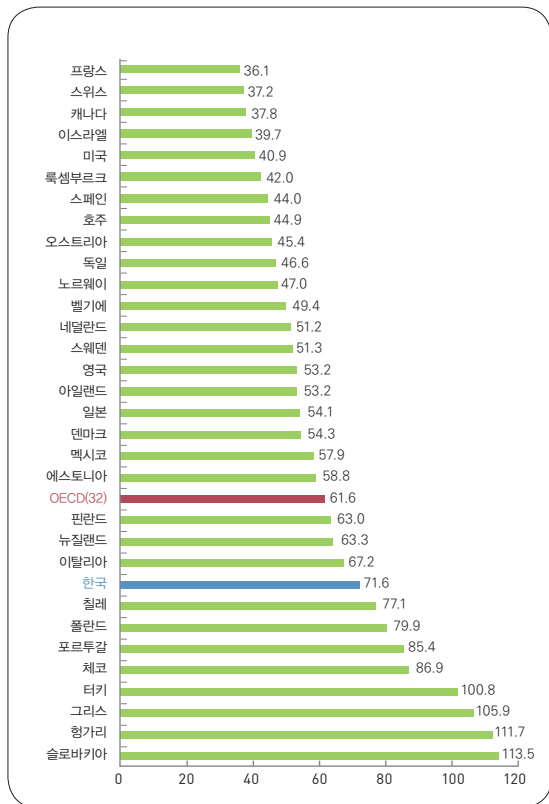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2009			2014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55.0	55.0	53.8	44.9	43.1	45.3
오스트리아	53.4	59.5	49.0	45.4	47.5	43.0
벨기에	57.2	62.2	53.0	49.4	53.3	46.0 [2013]
캐나다	42.7	44.7	40.7	37.8	39.1	36.3 [2011]
칠레	80.6	94.9	69.8	77.1	92.0	65.8 [2013]
체코	127.0	138.2	118.4	86.9	97.3	78.9
덴마크	64.7	72.5	59.0	54.3	60.8	49.0 [2012]
에스토니아	98.1	118.3	85.3	58.8	72.4	50.9
핀란드	71.8	79.2	65.3	63.0	67.6	58.2
프랑스	40.9	46.5	36.5	36.1	40.6	32.3 [2013]
독일	59.9	62.0	56.6	46.6	48.1	44.2
그리스	123.0	116.6	127.5	105.9	107.0	103.6 [2012]
헝가리	135.2	165.2	115.5	111.7	133.3	97.2
아이슬란드	60.3	66.7	53.9	-	-	-
아일랜드	65.5	67.4	62.9	53.2	53.2	51.6 [2013]
이스라엘	41.0	42.7	39.1	39.7	43.7	36.3 [2013]
이탈리아	74.9	82.1	69.3	67.2	72.8	62.7 [2012]
일본	64.2	82.4	50.8	54.1	69.0	42.7 [2013]
<b>한국</b>	<b>87.8</b>	<b>111.8</b>	<b>73.5</b>	<b>71.6</b>	<b>87.6</b>	<b>61.1 [2013]</b>
룩셈부르크	74.1	86.3	64.7	42.0	41.8	40.2
멕시코	65.2	70.1	61.3	57.9	62.7	54.1 [2013]
네덜란드	54.1	54.5	52.9	51.2	52.0	49.3 [2013]
뉴질랜드	66.7	61.5	68.8	63.3	56.7	66.5 [2012]
노르웨이	61.4	68.4	55.6	47.0	50.5	44.0
폴란드	106.9	124.3	94.0	79.9	92.4	70.1
포르투갈	116.5	130.2	105.9	85.4	95.8	77.1
슬로바키아	141.6	167.3	123.9	113.5	139.4	96.4
슬로베니아	104.8	121.0	93.5	-	-	-
스페인	57.5	63.4	52.4	44.0	47.9	40.4
스웨덴	65.3	71.3	60.3	51.3	55.9	47.0
스위스	42.4	44.9	40.4	37.2	39.3	35.5 [2013]
터키	100.4	104.5	96.8	100.8	107.8	95.4 [2013]
영국	69.6	69.8	68.2	53.2	53.8	51.8 [2013]
미국	44.4	45.3	42.9	40.9	42.4	39.2 [2013]
<b>평균<sup>1)</sup>(32)</b>	<b>75.3</b>	<b>83.2</b>	<b>69.2</b>	<b>61.6</b>	<b>67.7</b>	<b>56.6</b>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4-1) 뇌혈관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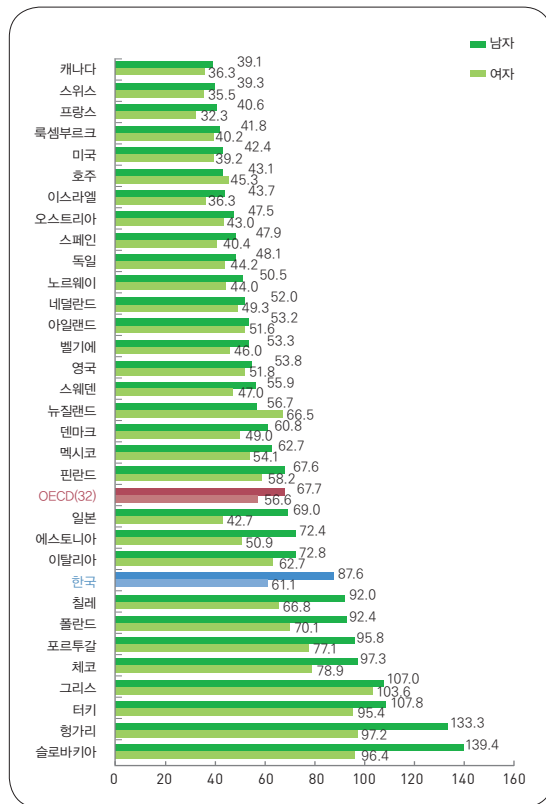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벨기에(2013), 캐나다(2011), 칠레(2013), 덴마크(2012), 프랑스(2013),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3), 이스라엘(2013), 이탈리아(2012), 일본(2013), 한국(2013), 멕시코(2013), 네덜란드(2013), 뉴질랜드(2012), 스위스(2013), 터키(2013), 영국(2013), 미국(2013)

(그림 4-2) 뇌혈관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남자, 여자), 2014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벨기에(2013), 캐나다(2011), 칠레(2013), 덴마크(2012), 프랑스(2013),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3), 이스라엘(2013), 이탈리아(2012), 일본(2013), 한국(2013), 멕시코(2013), 네덜란드(2013), 뉴질랜드(2012), 스위스(2013), 터키(2013), 영국(2013), 미국(2013)

##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 우리나라의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8.0명(2013년)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한 일본(35.4명,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 2009년 우리나라의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은 42.8명으로 4년간 4.8명 줄어듦
- OECD 회원국 중 슬로바키아 (297.0명), 헝가리(290.2명)는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매우 높았음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게 나타남

- OECD 회원국의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은 남성 평균 145.6명, 여성 평균 80.3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1.8배 높은 사망률을 기록함

〈표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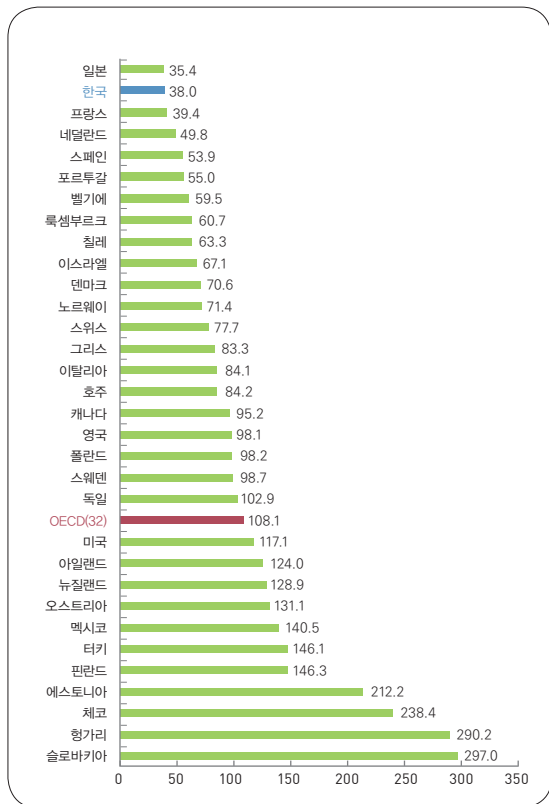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09			2014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10.7	142.4	84.4	84.2	108.5	63.2
오스트리아	153.3	200.0	120.9	131.1	174.1	100.0
벨기에	75.0	110.2	50.2	59.5	88.1	39.0 [2013]
캐나다	108.1	145.9	78.1	95.2	128.0	68.8 [2011]
칠레	69.6	96.9	48.5	63.3	90.1	42.3 [2013]
체코	263.9	325.8	219.8	238.4	306.0	190.6
덴마크	92.0	126.4	67.0	70.6	96.0	51.2 [2012]
에스토니아	312.7	434.8	247.0	212.2	301.3	160.7
핀란드	188.4	266.5	134.2	146.3	205.3	102.7
프랑스	47.6	72.0	30.5	39.4	60.2	24.4 [2013]
독일	129.4	172.1	97.8	102.9	139.8	74.9
그리스	92.1	125.0	63.0	83.3	118.1	52.9 [2012]
헝가리	318.7	410.7	257.8	290.2	369.2	237.4
아이슬란드	133.0	183.1	93.3	-	-	-
아일랜드	156.0	212.0	112.1	124.0	170.5	86.5 [2013]
이스라엘	84.8	113.1	63.5	67.1	88.9	50.2 [2013]
이탈리아	89.0	120.7	66.4	84.1	114.2	62.6 [2012]
일본	40.1	56.7	27.3	35.4	50.9	23.4 [2013]
<b>한국</b>	<b>42.8</b>	<b>56.2</b>	<b>33.5</b>	<b>38.0</b>	<b>48.8</b>	<b>30.0 [2013]</b>
룩셈부르크	64.5	100.9	39.7	60.7	93.7	35.0
멕시코	134.1	166.3	108.4	140.5	174.2	113.2 [2013]
네덜란드	63.2	91.4	43.1	49.8	70.0	34.6 [2013]
뉴질랜드	147.8	193.0	111.0	128.9	166.9	96.9 [2012]
노르웨이	100.5	137.8	72.9	71.4	97.0	50.8
폴란드	140.3	194.3	103.8	98.2	140.4	69.2
포르투갈	61.5	80.5	47.1	55.0	76.0	38.4
슬로바키아	414.7	502.4	354.7	297.0	373.8	247.5
슬로베니아	93.9	131.8	67.2	-	-	-
스페인	66.9	95.3	45.0	53.9	78.8	34.6
스웨덴	128.9	176.5	93.3	98.7	134.0	71.2
스위스	93.4	129.5	67.8	77.7	108.3	56.0 [2013]
터키	122.5	159.5	92.8	146.1	190.8	110.9 [2013]
영국	118.2	165.2	81.7	98.1	138.2	66.3 [2013]
미국	133.1	178.7	98.7	117.1	160.4	84.0 [2013]
<b>평균(32)</b>	<b>130.1</b>	<b>173.7</b>	<b>98.8</b>	<b>108.1</b>	<b>145.6</b>	<b>80.3</b>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5-1] 허혈성심장질환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4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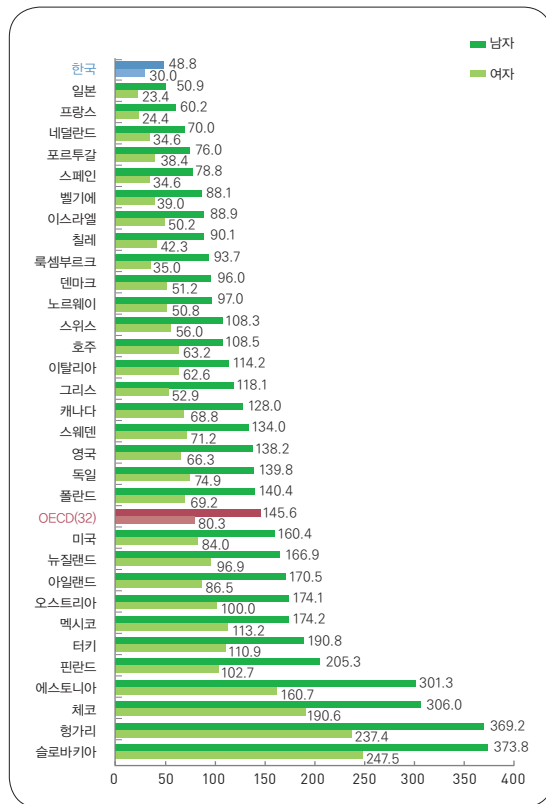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벨기에(2013), 캐나다(2011), 칠레(2013), 덴마크(2012), 프랑스(2013),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3), 이스라엘(2013), 이탈리아(2012), 일본(2013), 한국(2013), 멕시코(2013), 네덜란드(2013), 뉴질랜드(2012), 스위스(2013), 터키(2013), 영국(2013), 미국(2013)

[그림 5-2] 허혈성심장질환의 연령표준화 사망률(남자, 여자), 2014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벨기에(2013), 캐나다(2011), 칠레(2013), 덴마크(2012), 프랑스(2013),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3), 이스라엘(2013), 이탈리아(2012), 일본(2013), 한국(2013), 멕시코(2013), 네덜란드(2013), 뉴질랜드(2012), 스위스(2013), 터키(2013), 영국(2013), 미국(2013)



##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

- 우리나라의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0.0명(2013년)으로 OECD 회원국 평균(65.9명)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2009년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65.0명으로 4년 사이 5.0명 늘어남
  - OECD 회원국 중 핀란드(26.3명), 오스트리아(34.6명)는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가장 낮았으며, 영국(110.1명, 2013년)은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100명 이상으로 가장 높았음
-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에 비해 높았음
  - 우리나라 남성의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112.0명(2013년), 여성의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48.9명(2013년)으로,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에 비하여 2.3배 높았음

〈표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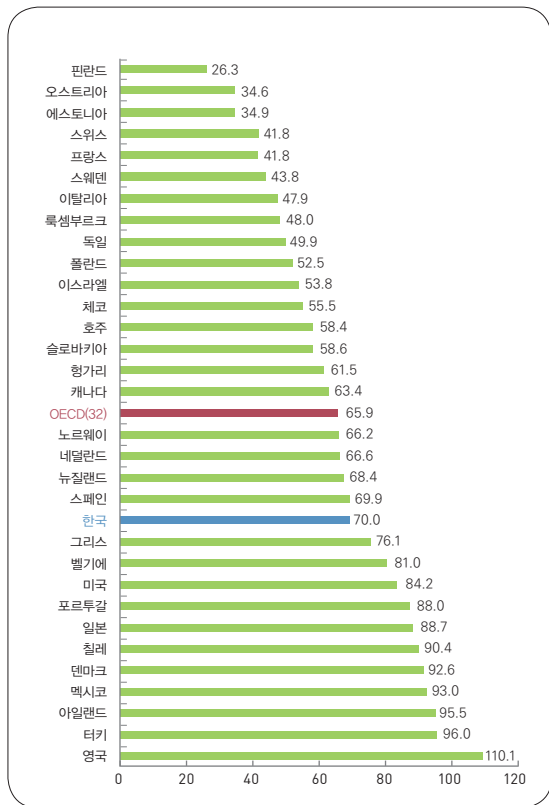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09			2014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54.4	69.9	43.8	58.4	71.4	48.5
오스트리아	43.6	62.9	32.6	34.6	50.1	24.9
벨기에	87.6	127.0	63.5	81.0	113.4	60.3 [2013]
캐나다	64.7	82.1	53.4	63.4	78.5	53.3 [2011]
칠레	90.4	116.7	72.5	90.4	113.4	74.9 [2013]
체코	63.4	91.1	46.4	55.5	82.8	38.7
덴마크	102.8	124.1	90.6	92.6	108.7	83.4 [2012]
에스토니아	30.9	60.7	14.9	34.9	71.6	17.1
핀란드	35.9	60.1	22.9	26.3	42.1	16.3
프랑스	43.1	62.6	31.3	41.8	59.1	30.7 [2013]
독일	60.3	84.9	45.3	49.9	68.4	37.4
그리스	85.7	98.6	75.3	76.1	92.2	64.1 [2012]
헝가리	60.8	94.5	41.7	61.5	92.5	43.8
아이슬란드	66.6	64.1	69.3	-	-	-
아일랜드	115.1	145.1	95.9	95.5	116.9	81.7 [2013]
이스라엘	56.1	68.5	47.0	53.8	66.1	44.6 [2013]
이탈리아	47.5	73.8	32.3	47.9	72.0	33.7 [2012]
일본	89.1	142.6	58.6	88.7	141.2	57.7 [2013]
<b>한국</b>	<b>65.0</b>	<b>107.5</b>	<b>44.0</b>	<b>70.0</b>	<b>112.0</b>	<b>48.9 [2013]</b>
룩셈부르크	66.8	90.5	52.7	48.0	65.8	38.3
멕시코	98.7	125.8	79.2	93.0	117.2	75.7 [2013]
네덜란드	84.1	118.9	64.8	66.6	90.4	52.8 [2013]
뉴질랜드	68.1	80.9	60.1	68.4	80.2	60.5 [2012]
노르웨이	77.2	98.7	64.6	66.2	84.2	54.8
폴란드	60.6	98.2	39.5	52.5	83.6	35.1
포르투갈	100.3	139.6	75.8	88.0	121.4	66.7
슬로바키아	73.4	113.2	50.0	58.6	94.1	39.3
슬로베니아	62.1	92.0	47.6	-	-	-
스페인	79.9	120.7	53.3	69.9	103.4	47.4
스웨덴	47.8	58.9	40.8	43.8	54.1	37.1
스위스	44.7	62.5	34.0	41.8	57.4	31.8 [2013]
터키	79.3	117.2	53.2	96.0	138.5	67.1 [2013]
영국	108.0	130.2	93.3	110.1	130.4	96.2 [2013]
미국	83.5	100.2	72.7	84.2	100.1	73.7 [2013]
<b>평균'(32)</b>	<b>70.9</b>	<b>97.8</b>	<b>54.6</b>	<b>65.9</b>	<b>89.8</b>	<b>51.1</b>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6-1) 호흡기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전체), 2014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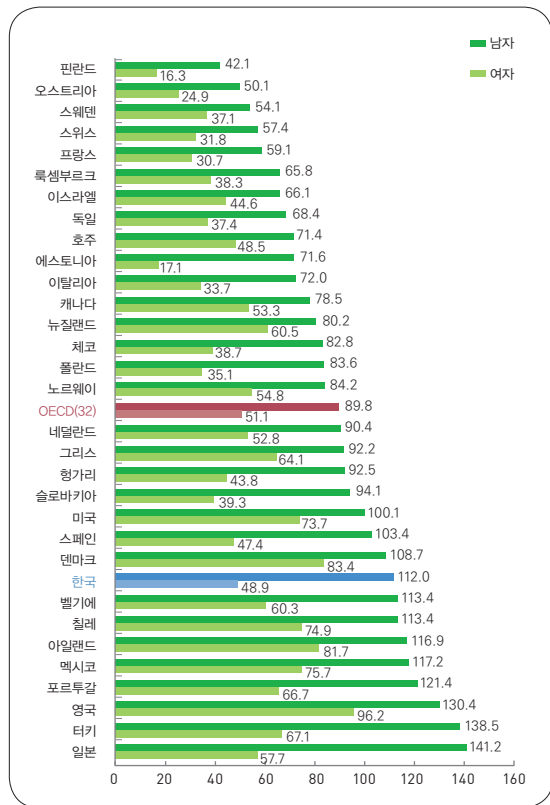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벨기에(2013), 캐나다(2011), 칠레(2013), 덴마크(2012), 프랑스(2013),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3), 이스라엘(2013), 이탈리아(2012), 일본(2013), 한국(2013), 멕시코(2013), 네덜란드(2013), 뉴질랜드(2012), 스위스(2013), 터키(2013), 영국(2013), 미국(2013)

(그림 6-2) 호흡기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남자, 여자), 2014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벨기에(2013), 캐나다(2011), 칠레(2013), 덴마크(2012), 프랑스(2013),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3), 이스라엘(2013), 이탈리아(2012), 일본(2013), 한국(2013), 멕시코(2013), 네덜란드(2013), 뉴질랜드(2012), 스위스(2013), 터키(2013), 영국(2013), 미국(2013)

## 7. 자살에 의한 사망률(자살률)

-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7명 (2013년)으로 OECD 평균(11.8명)에 비해 16.9명 높았음
  -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는 가장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29.5	29.9	26.2	28.7	29.0	33.8	33.5	33.3	29.1	28.7
남성	45.0	45.1	39.9	41.9	41.9	48.3	49.6	50.0	43.2	43.3
여성	17.7	18.6	15.9	19.3	19.4	22.8	21.4	20.2	17.8	16.8

-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남성 18.9명, 여성 5.5명으로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OECD 평균 자살률은 2009년 12.5명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냄
-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2.6명, 2013년)와 그리스(4.2명, 2012년)이며, 일본(18.7명, 2013년)은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함

〈표 7〉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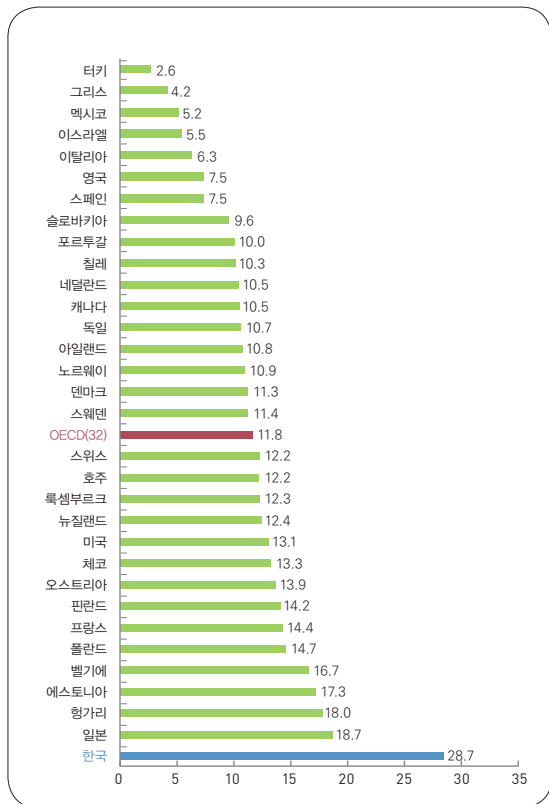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09			2014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0.7	16.6	5.0	12.2	18.7	6.0
오스트리아	14.1	23.7	6.2	13.9	22.7	6.4
벨기에	17.9	27.0	9.6	16.7	24.9	9.0 [2013]
캐나다	11.1	17.4	5.1	10.5	15.9	5.3 [2011]
칠레	13.3	22.4	5.0	10.3	17.6	3.6 [2013]
체코	13.2	23.8	4.0	13.3	22.7	5.0
덴마크	10.8	17.3	4.7	11.3	17.5	5.4 [2012]
에스토니아	19.3	35.9	5.9	17.3	32.1	5.9
핀란드	18.9	28.6	9.8	14.2	22.1	6.8
프랑스	16.2	25.8	8.0	14.4	23.1	6.7 [2013]
독일	10.3	16.7	4.8	10.7	17.0	5.1
그리스	3.2	5.6	0.9	4.2	7.1	1.5 [2012]
헝가리	23.3	40.4	9.5	18.0	31.0	7.5
아이슬란드	11.8	18.7	4.6	-	-	-
아일랜드	11.7	18.8	4.7	10.8	17.3	4.2 [2013]
이스라엘	6.2	9.9	2.8	5.5	9.0	2.3 [2013]
이탈리아	5.9	9.8	2.5	6.3	10.5	2.6 [2012]
일본	22.2	33.4	11.7	18.7	27.2	10.6 [2013]
<b>한국</b>	<b>33.8</b>	<b>48.3</b>	<b>22.8</b>	<b>28.7</b>	<b>43.3</b>	<b>16.8 [2013]</b>
룩셈부르크	9.3	14.2	4.5	12.3	19.2	5.5
멕시코	5.0	8.8	1.6	5.2	9.1	1.7 [2013]
네덜란드	8.9	12.8	5.3	10.5	15.2	6.1 [2013]
뉴질랜드	12.0	19.2	5.4	12.4	18.8	6.4 [2012]
노르웨이	11.9	17.4	6.6	10.9	16.0	5.8
폴란드	16.3	29.5	4.5	14.7	26.7	3.8
포르투갈	8.9	15.6	3.5	10.0	16.5	4.6
슬로바키아	10.8	21.1	2.0	9.6	18.1	2.7
슬로베니아	20.0	33.3	8.0	-	-	-
스페인	6.9	11.4	3.0	7.5	11.8	3.7
스웨덴	12.9	18.8	7.3	11.4	15.8	7.2
스위스	13.4	21.1	6.5	12.2	18.9	6.3 [2013]
터키	2.0	3.5	0.9	2.6	4.1	1.3 [2013]
영국	6.8	10.9	2.9	7.5	12.2	3.0 [2013]
미국	12.2	20.0	5.0	13.1	21.1	5.7 [2013]
<b>평균(32)</b>	<b>12.5</b>	<b>20.2</b>	<b>5.7</b>	<b>11.8</b>	<b>18.9</b>	<b>5.5</b>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7-1]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전체), 2014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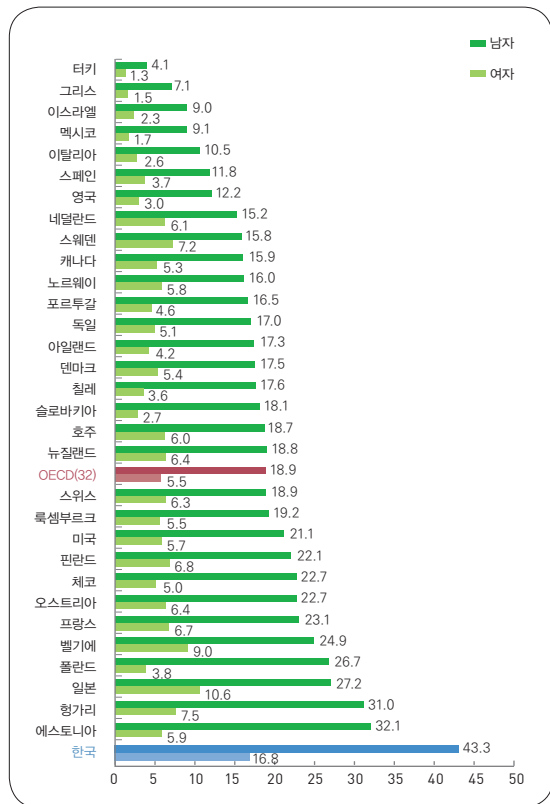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벨기에(2013), 캐나다(2011), 칠레(2013), 덴마크(2012), 프랑스(2013),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3), 이스라엘(2013), 이탈리아(2012), 일본(2013), 한국(2013), 멕시코(2013), 네덜란드(2013), 뉴질랜드(2012), 스위스(2013), 터키(2013), 영국(2013), 미국(2013)

[그림 7-2]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남자, 여자), 2014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벨기에(2013), 캐나다(2011), 칠레(2013), 덴마크(2012), 프랑스(2013),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3), 이스라엘(2013), 이탈리아(2012), 일본(2013), 한국(2013), 멕시코(2013), 네덜란드(2013), 뉴질랜드(2012), 스위스(2013), 터키(2013), 영국(2013), 미국(2013)

##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

-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 좋음, 매우 좋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5%로 OECD 평균 69.6%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평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71.9%, 여자 67.4%인 반면, 우리나라는 남자 36.5%, 여자 28.6%로 남·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한국(32.5%)과 일본(35.4%, 2013년)은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0% 미만으로 낮으며, 뉴질랜드(91.4%), 캐나다(88.1%), 미국(88.1%), 호주(85.2%)에서 높음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남성이 여성 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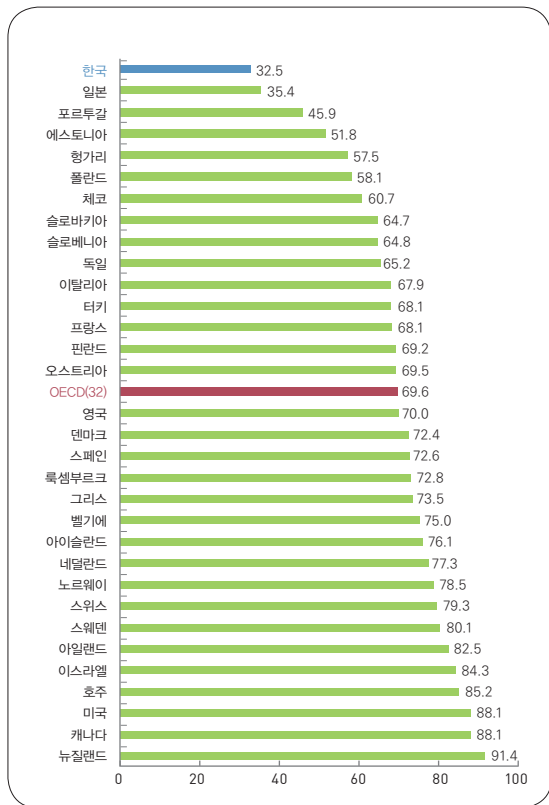
〈표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단위: %)

	2009			2014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84.9	84.4	85.3 [2007]	85.2	85.4	85.1
오스트리아	70.0	72.0	68.2	69.5	71.9	67.2
벨기에	73.5	76.2	70.9	75.0	77.3	72.9
캐나다	88.5	88.9	88.2	88.1	88.1	88.2
칠레	59.1	67.3	51.4	-	-	-
체코	61.3	63.7	59.3	60.7	63.2	58.8
덴마크	72.3	73.3	71.4	72.4	74.4	70.5
에스토니아	51.5	53.4	50.2	51.8	54.7	49.9
핀란드	68.9	69.4	68.4	69.2	69.3	69.1
프랑스	68.6	71.3	66.1	68.1	70.9	65.5
독일	65.2	66.9	63.5	65.2	66.9	63.5
그리스	75.3	78.5	72.3	73.5	76.1	71.0
헝가리	55.9	60.1	52.3	57.5	61.3	54.1
아이슬란드	80.3	81.9	78.5	76.1	79.4	73.0
아일랜드	83.1	83.6	82.7	82.5	83.3	81.8
이스라엘	79.8	82.5	77.1	84.3	86.3	82.5
이탈리아	63.7	68.2	59.6	67.9	71.7	64.5
일본	30.0	31.5	28.6 [2010]	35.4	37.1	33.8 [2013]
<b>한국</b>	<b>44.8</b>	<b>48.9</b>	<b>40.7</b>	<b>32.5</b>	<b>36.5</b>	<b>28.6</b>
룩셈부르크	73.9	76.4	71.6	72.8	74.6	71.0
멕시코	65.5	66.9	64.2 [2006]	-	-	-
네덜란드	77.6	80.6	74.9	77.3	80.5	74.2
뉴질랜드	89.7	89.6	89.8 [2007]	91.4	91.4	91.5
노르웨이	76.5	78.2	74.6	78.5	79.9	77.0
폴란드	56.1	60.1	52.8	58.1	61.6	55.1
포르투갈	47.7	53.4	42.4	45.9	50.4	41.9
슬로바키아	61.9	66.7	57.5	64.7	68.5	61.1
슬로베니아	59.7	62.9	56.8	64.8	68.1	61.5
스페인	70.6	74.6	66.8	72.6	76.3	69.2
스웨덴	79.7	83.0	76.5	80.1	82.6	77.6
스위스	80.9	83.5	78.4	79.3	81.6	77.1
터키	65.1	71.0	59.5	68.1	72.6	63.7
영국	78.2	78.9	77.6	70.0	70.4	69.6
미국	87.9	88.6	87.2	88.1	88.7	87.6
<b>평균'(32)</b>	<b>69.5</b>	<b>71.9</b>	<b>67.2</b>	<b>69.6</b>	<b>71.9</b>	<b>67.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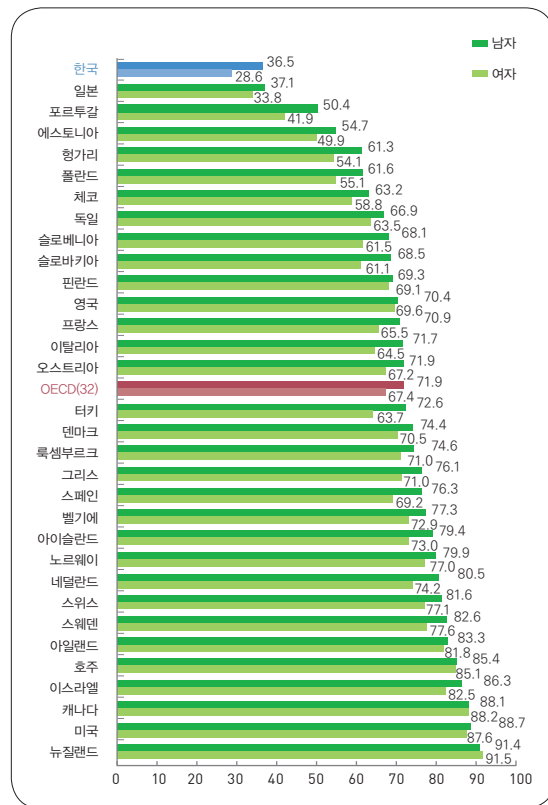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8-1)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전체) 2014년  
(단위: %)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일본(2013)

(그림 8-2)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남자, 여자) 2014년  
(단위: %)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일본(2013)

## 제Ⅱ장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 9. 주류 소비량
- 10. 흡연인구 비율
- 11.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 II.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 9. 주류 소비량

-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9.0리터로 OECD 평균(9.0리터)과 같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12.2리터, 2011년), 체코(11.9리터)는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터키(1.5리터), 이스라엘(2.6리터, 2011년)은 5리터 미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2009년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량은 8.9리터로, 5년간 0.1리터가 늘었음
  - OECD 회원국 평균 주류 소비량은 2009년 9.3리터에서 2014년 9.0리터로 줄었음

〈표 9〉 주류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단위: 순수알코올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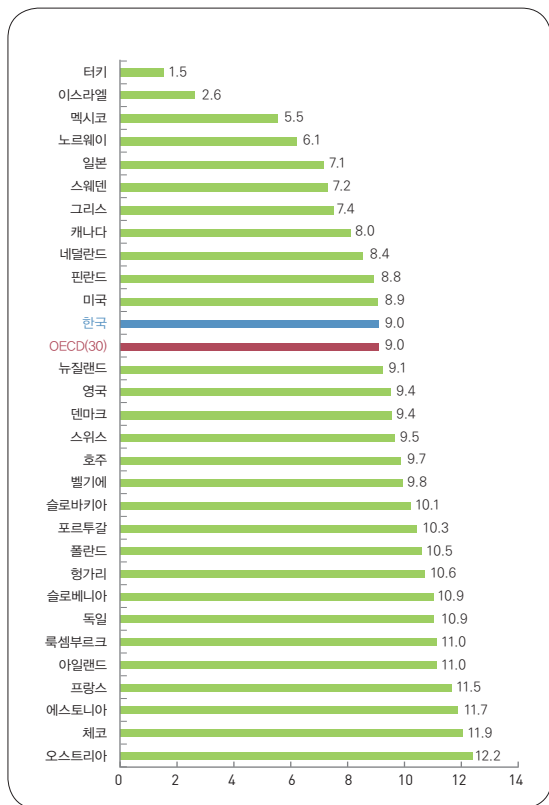
	2009	2014
호주	10.5	9.7 [2013]
오스트리아	12.1	12.2 [2011]
벨기에	10.4	9.8 [2012]
캐나다	8.4	8.0
칠레	7.7	-
체코	12.1	11.9
덴마크	10.1	9.4 [2013]
에스토니아	11.9	11.7
핀란드	10.0	8.8
프랑스	12.2	11.5
독일	11.2	10.9 [2013]
그리스	8.3	7.4 [2011]
헝가리	11.5	10.6 [2013]
아이슬란드	7.0	-
아일랜드	11.0	11.0
이스라엘	2.5	2.6 [2011]
이탈리아	6.4	-
일본	7.4	7.1
<b>한국</b>	<b>8.9</b>	<b>9.0</b>
룩셈부르크	11.4	11.0 [2013]
멕시코	6.5	5.5
네덜란드	9.4	8.4
뉴질랜드	9.3	9.1
노르웨이	6.7	6.1
폴란드	10.2	10.5
포르투갈	10.9	10.3 [2011]
슬로바키아	10.7	10.1
슬로베니아	10.5	10.9
스페인	10.0	-
스웨덴	7.3	7.2
스위스	10.1	9.5
터키	1.5	1.5
영국	10.1	9.4
미국	8.7	8.9 [2013]
<b>평균(30)</b>	<b>9.3</b>	<b>9.0</b>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9-1] 주류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2014년

(단위: 순수알코올 ℓ)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호주(2013), 오스트리아(2011), 벨기에(2012), 덴마크(2013), 독일(2013), 그리스(2011), 헝가리(2013), 이스라엘(2011), 룩셈부르크(2013), 포르투갈(2011), 미국(2013)

[그림 9-2] 연도별 주류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2006~2014년

(단위: 순수알코올 ℓ)



주) OECD 평균: 34개국 기준, 각 해당년도 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014년 30개국 평균(칠레,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제외)

## 10. 흡연인구 비율(흡연율)

-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흡연율은 20.0%로 OECD 평균(18.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여성 흡연율(4.0%)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3.6%, 2015년)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36.6%)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37.3%,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그리스(27.3%)가 가장 높은 흡연율을 기록하였으며, 멕시코(7.6%, 2015년)는 흡연율이 가장 낮았음
  - 2009년과 2014년 사이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흡연율이 변동이 없거나 줄어 들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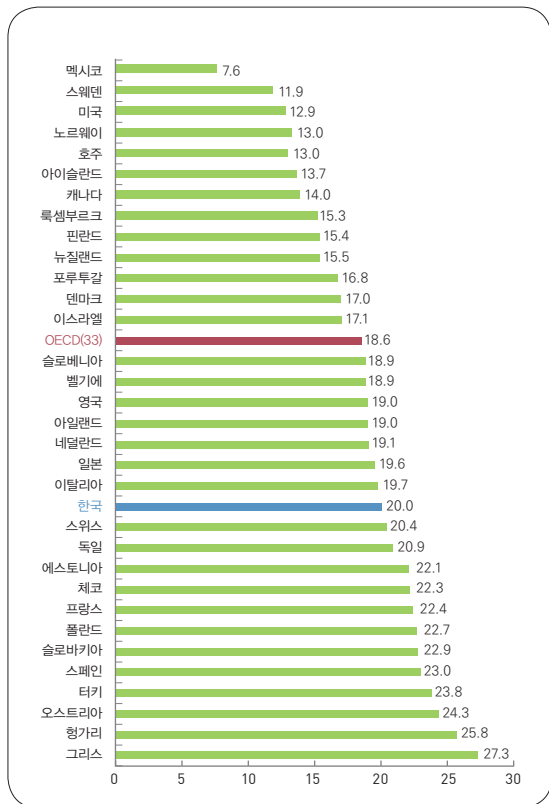
〈표 10〉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흡연자)

(단위: %)

	2009			2014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5.4	16.7	14.1 [2010]	13.0	14.7	11.3 [2013]
오스트리아	23.2	27.3	19.4 [2006]	24.3	26.5	22.1
벨기에	20.5	23.6	17.7 [2008]	18.9	21.6	16.4 [2013]
캐나다	16.2	18.3	14.2	14.0	16.3	11.7
칠레	29.8	33.7	26.0	-	-	-
체코	23.8	29.7	18.0	22.3	26.4	18.5
덴마크	19.0	22.0	17.0	17.0	17.0	17.0
에스토니아	26.2	36.8	18.7 [2010]	22.1	31.4	15.8
핀란드	18.6	21.9	16.0	15.4	17.2	14.0
프랑스	23.3	26.4	20.7 [2010]	22.4	25.8	19.4
독일	21.9	26.4	17.6	20.9	25.1	17.1 [2013]
그리스	27.3	39.0	26.5	27.3	33.5	21.6
헝가리	26.5	31.9	21.7	25.8	31.5	20.8
아이슬란드	15.4	15.7	15.2	13.7	13.6	13.7
아일랜드	24.0	25.0	22.0 [2007]	19.0	20.0	17.0 [2015]
이스라엘	18.5	24.8	12.6 [2010]	17.1	23.2	11.4
이탈리아	23.3	29.9	17.1	19.7	24.8	14.9
일본	23.4	38.2	10.9	19.6	32.2	8.5
<b>한국</b>	<b>25.6</b>	<b>44.3</b>	<b>7.0</b>	<b>20.0</b>	<b>36.6</b>	<b>4.0</b>
룩셈부르크	19.0	22.0	17.0	15.3	17.0	13.7
멕시코	7.6	11.8	3.7	7.6	11.9	3.6 [2015]
네덜란드	22.6	25.5	19.8	19.1	21.7	16.7
뉴질랜드	18.1	19.3	17.0 [2007]	15.5	16.9	14.1
노르웨이	21.0	21.0	20.0	13.0	14.0	13.0
폴란드	23.8	30.9	17.9	22.7	28.8	17.2
포르투갈	18.6	27.2	11.0 [2006]	16.8	23.5	10.9
슬로바키아	19.5	27.1	12.5	22.9	30.4	15.8
슬로베니아	18.9	22.4	15.5 [2007]	18.9	21.8	16.0
스페인	26.2	31.2	21.3	23.0	27.6	18.6
스웨덴	14.0	14.6	13.3	11.9	12.1	11.7
스위스	20.4	23.4	17.6 [2007]	20.4	23.1	17.8 [2012]
터키	25.4	39.0	12.3 [2010]	23.8	37.3	10.7 [2012]
영국	21.0	22.0	20.0	19.0	22.0	17.0 [2013]
미국	16.1	17.9	14.4	12.9	14.0	11.8
<b>평균(33)</b>	<b>20.7</b>	<b>25.9</b>	<b>16.4</b>	<b>18.6</b>	<b>23.0</b>	<b>14.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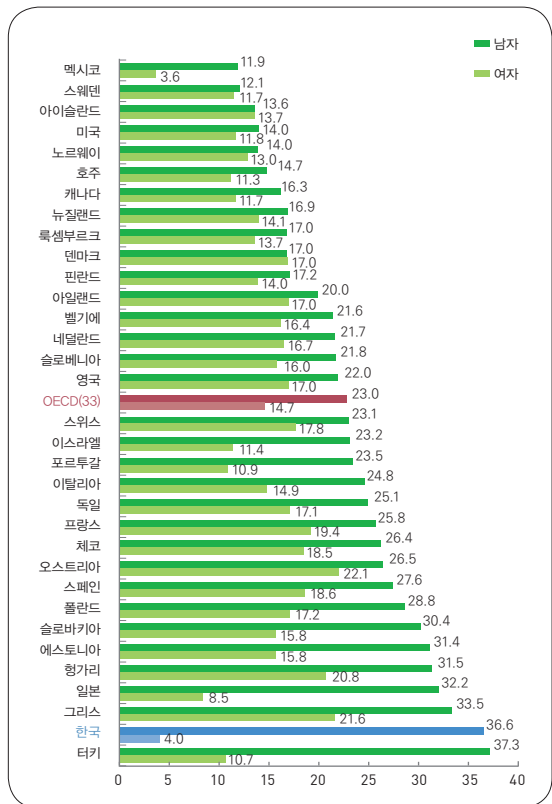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0-1]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흡연자, 전체), 2014년  
(단위: %)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호주(2013), 벨기에(2013), 독일(2013), 아일랜드(2015), 멕시코(2015), 스위스(2012), 터키(2012), 영국(2013)

[그림 10-2]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흡연자, 남자, 여자), 2014년  
(단위: %)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호주(2013), 벨기에(2013), 독일(2013), 아일랜드(2015), 멕시코(2015), 스위스(2012), 터키(2012), 영국(2013)

## 11.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 우리나라의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30.8%로 자료를 제출한 15개 OECD 회원국 중 일본(24.7%)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57.3%)에 비해 매우 낮음
  -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는 비만 및 과체중 인구의 비율이 71.3%(2012년)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은 70.1%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남성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여성에 비하여 높았으나, 멕시코와 터키에서는 여성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더 높았음

〈표 11〉 측정된 과체중과 비만인구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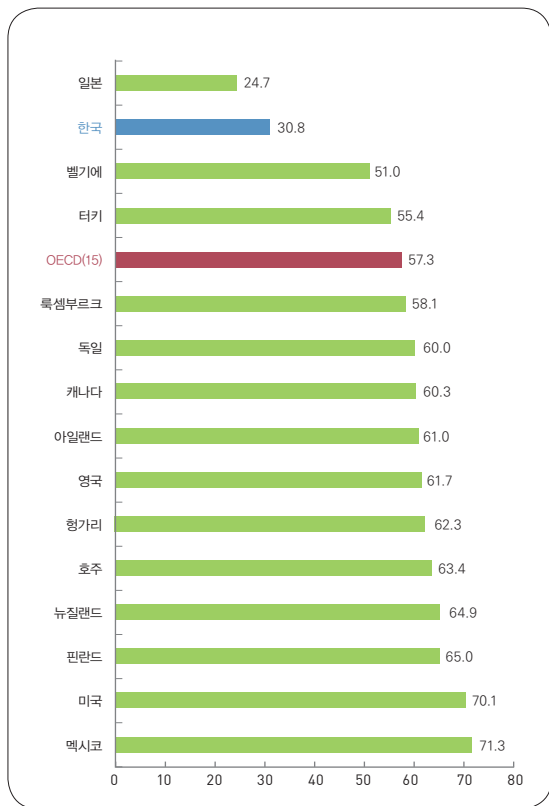
	2009				2014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61.2	67.7	54.7	[2007]	63.4	70.8	56.3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	-	-		51.0	55.5	46.4
캐나다	58.6	64.8	52.5	[2010]	60.3	68.0	52.6 [2013]
칠레	64.5	64.6	64.3		-	-	-
체코	55.0	61.0	49.0	[2010]	-	-	-
덴마크	-	-	-		-	-	-
에스토니아	-	-	-		-	-	-
핀란드	-	-	-		65.0	70.2	59.8 [2011]
프랑스	49.3	57.1	41.4	[2007]	-	-	-
독일	-	-	-		60.0	67.1	52.9 [2012]
그리스	-	-	-		-	-	-
헝가리	61.6	62.7	60.7		62.3	64.8	60.0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61.0	67.0	56.0	[2007]	61.0	68.0	53.0 [2015]
이스라엘	-	-	-		-	-	-
이탈리아	-	-	-		-	-	-
일본	25.1	30.5	20.8		24.7	28.7	21.3
한국	30.5	34.5	26.4		30.8	36.7	24.9
룩셈부르크	58.7	66.8	48.2		58.1	65.8	48.7
멕시코	65.1	-	-	[2008]	71.3	69.4	73.0 [2012]
네덜란드	-	-	-		-	-	-
뉴질랜드	64.7	69.1	60.6		64.9	70.3	59.9
노르웨이	-	-	-		-	-	-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51.5	57.8	47.7	[2008]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	-	-
스위스	-	-	-		-	-	-
터키	-	-	-		55.4	52.7	58.0 [2011]
영국	61.3	65.8	56.7		61.7	65.3	58.1
미국	68.8	74.0	63.6	[2010]	70.1	73.7	66.7
평균 <sup>1</sup> (10)	55.2	60.3	50.0		55.7	61.2	50.2
최근평균 <sup>1</sup> (15)					57.3	61.8	52.8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1-1] 측정된 과체중과 비만인구비율(전체),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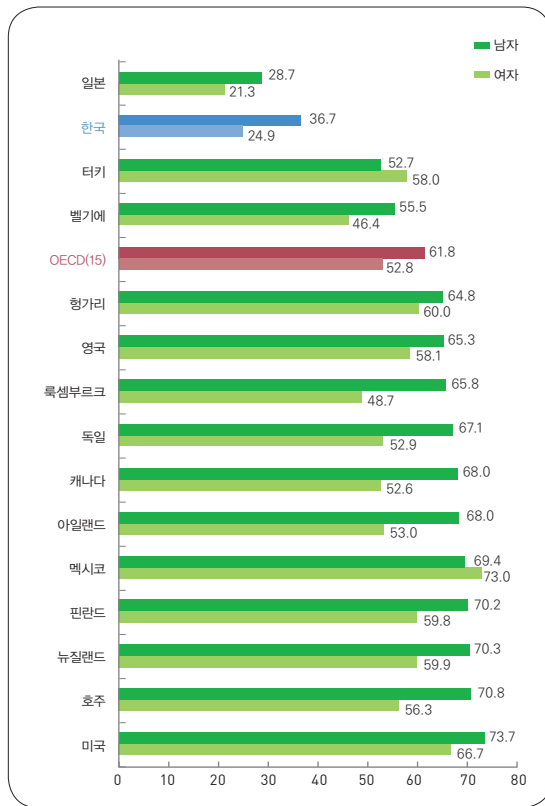
(단위: %)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2013), 핀란드(2011), 독일(2012), 아일랜드(2015), 멕시코(2012), 터키(2011)

[그림 11-2] 측정된 과체중과 비만인구비율(남자, 여자), 2014년

(단위: %)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2013), 핀란드(2011), 독일(2012), 아일랜드(2015), 멕시코(2012), 터키(2011)

## 제III장 보건의료자원

- 12. 총 병원병상
- 13. 급성기의료 병원병상
- 14. 임상 의사
- 15. 임상 간호사
- 16. CT 스캐너
- 17. MRI 장비
- 18. 의학계열 졸업자

# Ⅲ. 보건의료자원



## 12. 총 병원병상

- 우리나라의 총 병원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1.7병상으로 OECD 평균(4.7병상)보다 2.5배 많음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5년간 총 병원병상수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1.4배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인구 1,000명당 총 병원병상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13.2병상)이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총 병원병상수가 많았음
  - 멕시코(1.6병상), 칠레(2.1병상)는 OECD 회원국 중 매우 적은 병원병상수를 기록함

〈표 12〉 병원 총병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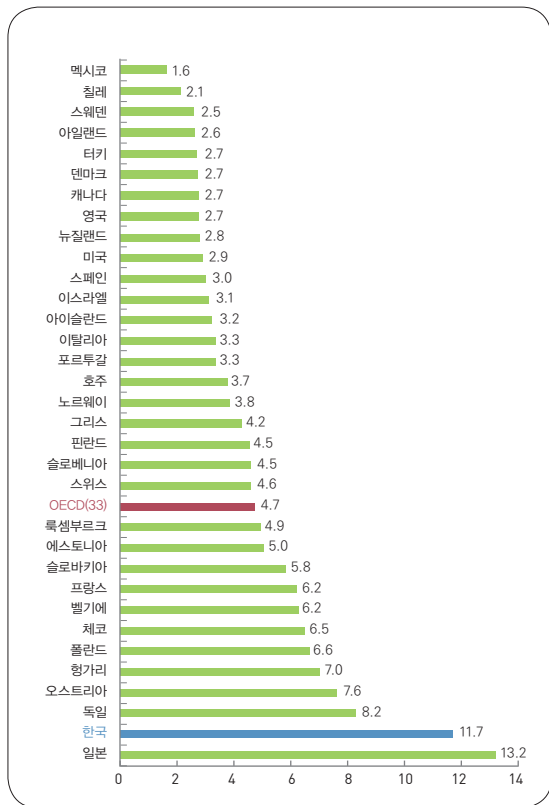
(단위: 병상수/인구 1,000명)

	2009	2014
호주	3.8	3.7 [2013]
오스트리아	7.7	7.6
벨기에	6.5	6.2
캐나다	2.8	2.7 [2013]
칠레	2.3	2.1
체코	7.1	6.5
덴마크	3.5	2.7
에스토니아	5.4	5.0
핀란드	6.3	4.5
프랑스	6.7	6.2
독일	8.2	8.2
그리스	4.9	4.2
헝가리	7.1	7.0
아이슬란드	3.7	3.2
아일랜드	2.8	2.6
이스라엘	3.2	3.1
이탈리아	3.7	3.3 [2013]
일본	13.6	13.2
<b>한국</b>	<b>8.2</b>	<b>11.7</b>
룩셈부르크	5.5	4.9
멕시코	1.6	1.6
네덜란드	4.7	-
뉴질랜드	2.4	2.8
노르웨이	4.5	3.8
폴란드	6.7	6.6
포르투갈	3.4	3.3
슬로바키아	6.5	5.8
슬로베니아	4.6	4.5
스페인	3.2	3.0
스웨덴	2.8	2.5
스위스	5.1	4.6
터키	2.4	2.7
영국	3.3	2.7
미국	3.1	2.9 [2013]
<b>평균'(33)</b>	<b>4.9</b>	<b>4.7</b>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2) 병원 총병상수, 2014년

(단위: 병상수/인구 1,000명)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호주(2013), 캐나다(2013), 이탈리아(2013), 미국(2013)

### 13. 급성기의로 병원병상

-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급성기의로 병원병상수는 6.4병상으로 OECD 회원국 평균(3.6병상)에 비해 매우 높았음
  -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급성기의로 병원병상을 보유한 국가는 일본(7.9병상)이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 멕시코(1.6병상), 칠레(1.9병상)는 인구 1,000명당 급성기의로 병원병상수가 2.0병상 미만으로 낮았음
- 2009년과 2014년 사이 OECD 회원국 중 급성기의로 병원병상수가 늘어난 국가는 한국(5.5병상 → 6.4병상), 칠레(1.8병상 → 1.9병상), 네덜란드(3.1병상 → 3.3병상, 2012년), 뉴질랜드(2.4병상 → 2.7병상), 폴란드(4.4병상 → 5.0병상), 터키(2.3병상 → 2.6병상)뿐이었음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급성기의로 병원병상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표 13〉 병원 급성기의료병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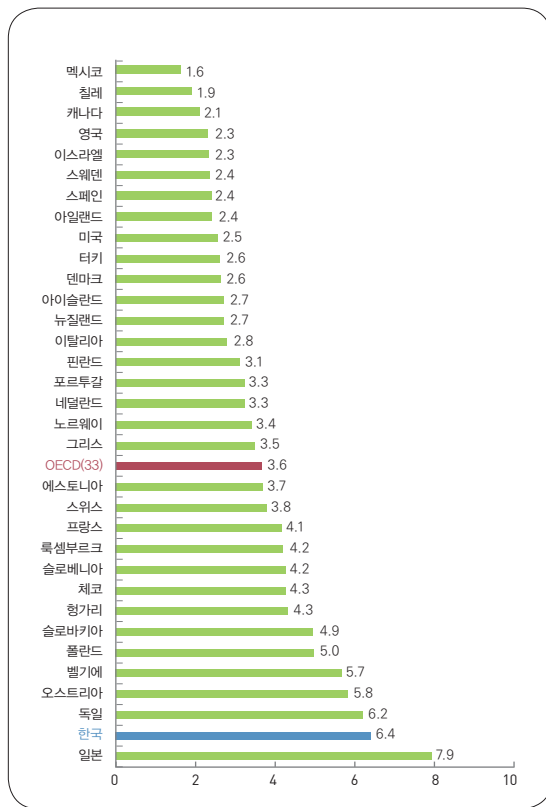
(단위: 병상수/인구 1,000명)

	2009	2014
호주	-	-
오스트리아	6.2	5.8
벨기에	6.0	5.7
캐나다	2.1	2.1 [2013]
칠레	1.8	1.9
체코	5.0	4.3
덴마크	3.4	2.6
에스토니아	3.9	3.7
핀란드	3.4	3.1
프랑스	4.4	4.1
독일	6.2	6.2
그리스	4.1	3.5
헝가리	4.5	4.3
아이슬란드	3.0	2.7
아일랜드	2.6	2.4
이스라엘	2.4	2.3
이탈리아	3.1	2.8 [2013]
일본	8.1	7.9
<b>한국</b>	<b>5.5</b>	<b>6.4</b>
룩셈부르크	4.2	4.2
멕시코	1.6	1.6
네덜란드	3.1	3.3 [2012]
뉴질랜드	2.4	2.7
노르웨이	4.0	3.4
폴란드	4.4	5.0
포르투갈	3.3	3.3
슬로바키아	5.5	4.9
슬로베니아	4.4	4.2
스페인	2.5	2.4
스웨덴	2.5	2.4
스위스	4.3	3.8
터키	2.3	2.6
영국	2.7	2.3
미국	2.7	2.5 [2013]
<b>평균(33)</b>	<b>3.8</b>	<b>3.6</b>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3〉 병원 급성기의료병상수, 2014년

(단위: 병상수/인구1,000명)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2013), 이탈리아(2013), 네덜란드(2012), 미국(2013)

## 14. 임상 의사

-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3.3명)보다 1.1명 적으며,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임상 의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5.1명을 기록하였으며,
  - 우리나라는 멕시코(2.2명), 폴란드(2.3명), 일본(2.4명)과 함께 임상 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2.5명 미만으로 낮음
- 2009년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1.9명이었으며, 5년간 0.3명이 증가하였음
  - 2009년과 2014년 사이 OECD 회원국 평균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수는 0.2명 증가하였으며, 독일은 0.5명(3.6명 → 4.1명)이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14〉 임상 의사

(단위: 명/인구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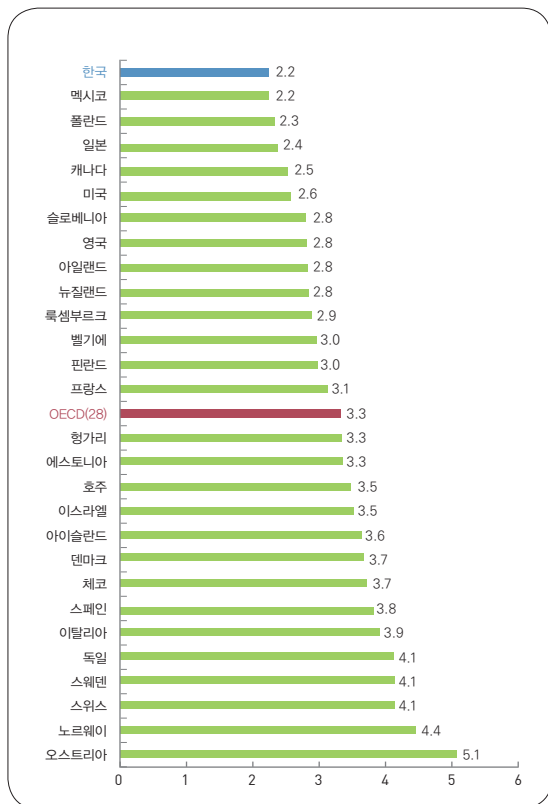
	2009	2014
호주	3.1	3.5
오스트리아	4.7	5.1
벨기에	2.9	3.0
캐나다	-	2.5
칠레	-	-
체코	3.6	3.7 [2013]
덴마크	3.5	3.7 [2013]
에스토니아	3.3	3.3
핀란드	2.8	3.0 [2013]
프랑스	-	3.1
독일	3.6	4.1
그리스	-	-
헝가리	3.0	3.3
아이슬란드	3.7	3.6
아일랜드	-	2.8
이스라엘	3.5	3.5
이탈리아	3.7	3.9
일본	2.2 [2010]	2.4
<b>한국</b>	<b>1.9</b>	<b>2.2</b>
룩셈부르크	2.7	2.9
멕시코	2.0	2.2
네덜란드	-	-
뉴질랜드	2.6	2.8
노르웨이	4.1	4.4
폴란드	2.2	2.3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3.0 [2007]	-
슬로베니아	2.4	2.8
스페인	3.6	3.8
스웨덴	3.8	4.1 [2013]
스위스	3.8	4.1
터키	-	-
영국	2.7	2.8
미국	2.4	2.6 [2013]
평균 <sup>1)</sup> (25)	3.1	3.3
최근 평균 <sup>2)</sup> (28)		3.3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4) 임상 의사, 2014년

(단위: 명/인구1,000명)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체코(2013), 덴마크(2013), 핀란드(2013), 스웨덴(2013), 미국(2013)

## 15. 임상간호사

- 우리나라의 임상간호사수(간호조무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5.6명으로 OECD 평균 (9.6명)보다 4.0명 적음  
 - 2009년 임상간호사 수는 4.5명으로 5년 사이 24.4% 증가하여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OECD회원국 중 스위스(17.6명), 노르웨이(16.9명), 덴마크(16.5명, 2013년), 아이슬란드(15.3명)는 인구 1,000명당 15명 이상의 많은 간호 인력을 확보함  
 - 멕시코(2.7명), 그리스(3.2명), 이스라엘(4.9명)은 5명 미만의 적은 간호 인력수를 기록함

〈표 15〉 임상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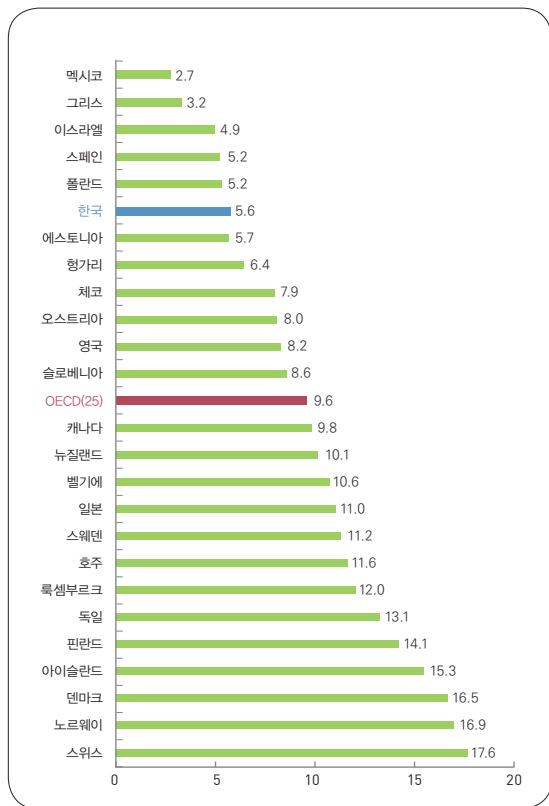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명)

	2009	2014
호주	10.2	11.6
오스트리아	7.6	8.0
벨기에	9.4	10.6
캐나다	9.3	9.8
칠레	-	-
체코	8.1	7.9
덴마크	15.6	16.5 [2013]
에스토니아	6.2	5.7
핀란드	13.6	14.1 [2012]
프랑스	-	-
독일	12.0	13.1
그리스	3.4	3.2
헝가리	6.2	6.4
아이슬란드	15.3	15.3
아일랜드	-	-
이스라엘	4.7	4.9
이탈리아	-	-
일본	10.1 [2010]	11.0
<b>한국</b>	<b>4.5</b>	<b>5.6</b>
룩셈부르크	11.1	12.0
멕시코	2.4	2.7
네덜란드	8.4 [2008]	-
뉴질랜드	9.7	10.1
노르웨이	15.9	16.9
폴란드	5.3	5.2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8.0	8.6
스페인	5.0	5.2
스웨덴	11.0	11.2 [2013]
스위스	15.2	17.6
터키	-	-
영국	9.8	8.2
미국	-	-
<b>평균(25)</b>	<b>9.2</b>	<b>9.6</b>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5〉 임상간호사, 2014년

(단위: 명/인구,1,000명)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덴마크(2013), 핀란드(2012), 스웨덴(2013)

## 16. CT 스캐너

- 우리나라의 CT 스캐너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7.1대로 OECD 평균 보유대수(25.6대)보다 많음
  - 2009년 우리나라의 CT 스캐너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6.8대로 5년간 0.3대가 증가함.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3.2대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일본은 인구 100만 명당 CT 스캐너 보유대수가 107.1대로 가장 많으며, 호주(56.1대), 미국(41.0대), 아이슬란드(39.7대), 덴마크(37.7대), 다음으로 한국이 뒤를 이었음
  - OECD 회원국 중 CT 스캐너 보유 대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5.9대)이며, 다음은 헝가리(7.9대, 2013년), 영국(8.0대), 이스라엘(9.6대)로 인구 100만 명당 CT 보유대수가 10대 이하로 낮았음

〈표 16〉 CT 스캐너 보유 대수

(단위: 대수/인구1,0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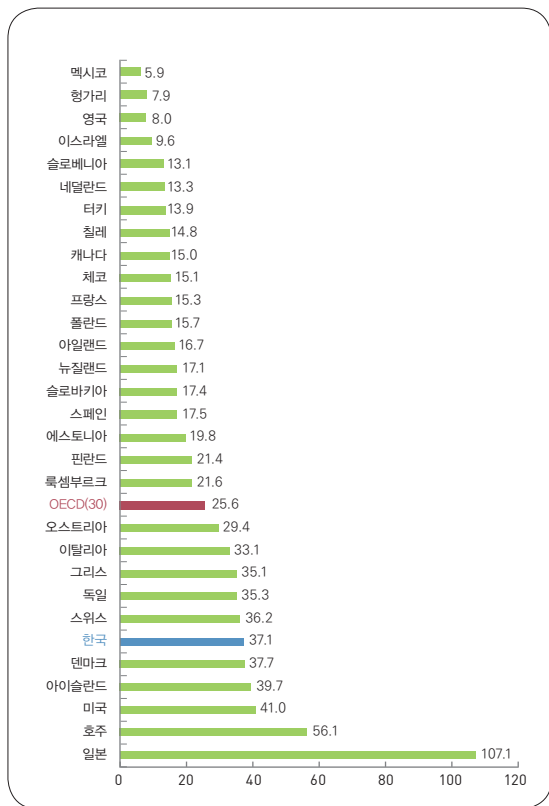
	2009	2014
호주	39.1	56.1
오스트리아	29.4	29.4
벨기에	-	-
캐나다	13.8	15.0 [2015]
칠레	-	14.8
체코	14.2	15.1
덴마크	23.7	37.7
에스토니아	15.0	19.8
핀란드	20.4	21.4
프랑스	11.1	15.3
독일	31.2	35.3
그리스	34.3	35.1 [2013]
헝가리	7.2	7.9 [2013]
아이슬란드	34.5	39.7
아일랜드	15.0	16.7
이스라엘	8.8	9.6
이탈리아	31.9	33.1 [2013]
일본	97.0 [2008]	107.1
<b>한국</b>	<b>36.8</b>	<b>37.1</b>
룩셈부르크	26.1	21.6
멕시코	4.1	5.9
네덜란드	11.3	13.3
뉴질랜드	14.6	17.1
노르웨이	-	-
폴란드	12.4	15.7
포르투갈	27.6 [2008]	-
슬로바키아	13.4	17.4
슬로베니아	11.8	13.1
스페인	16.0 [2010]	17.5
스웨덴	-	-
스위스	32.8	36.2
터키	11.6	13.9
영국	6.7 [2010]	8.0
미국	34.3 [2007]	41.0
평균 <sup>1)</sup> (29)	22.7	25.9
<b>최근평균<sup>2)</sup>(30)</b>		<b>25.6</b>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6) CT 스캐너 보유 대수, 2014년

(단위: 대수/인구1,000,000명)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2015), 그리스(2013), 헝가리(2013), 이탈리아(2013)

## 17. MRI(자기공명영상) 장비

- 우리나라의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5.7대로 OECD 평균(15.7대)보다 10.0대 많음
  - 우리나라는 2009년 MRI 보유 대수가 인구 100만 명당 18.8대를 보유하고 5년간 1.4배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2배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일본(51.7대)은 MRI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미국(38.1대)이 그 뒤를 이었음
  - 멕시코(2.3대), 헝가리(3.0대, 2013년)는 인구 100만 명당 MRI 보유 대수가 3대 이하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표 17〉 MRI 장비 보유대수

(단위: 대수/인구1,0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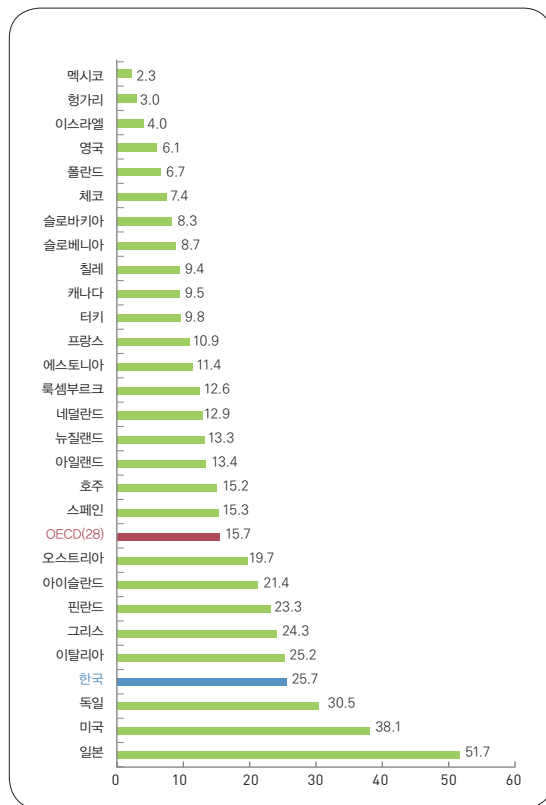
	2009	2014
호주	5.7	15.2
오스트리아	18.5	19.7
벨기에	-	-
캐나다	7.9	9.5 [2015]
칠레	-	9.4
체코	5.7	7.4
덴마크	15.4	-
에스토니아	7.5	11.4
핀란드	15.7	23.3
프랑스	6.4	10.9
독일	25.2	30.5
그리스	22.1	24.3 [2013]
헝가리	2.8	3.0 [2013]
아이슬란드	22.0	21.4
아일랜드	11.7	13.4
이스라엘	2.3	4.0
이탈리아	21.6	25.2 [2013]
일본	43.0 [2008]	51.7
<b>한국</b>	<b>18.8</b>	<b>25.7</b>
룩셈부르크	14.1	12.6
멕시코	1.9	2.3
네덜란드	11.0	12.9
뉴질랜드	9.8	13.3 [2015]
노르웨이	-	-
폴란드	3.7	6.7
포르투갈	9.3 [2008]	-
슬로바키아	6.1	8.3
슬로베니아	6.9	8.7
스페인	12.4 [2010]	15.3
스웨덴	-	-
스위스	-	-
터키	8.7	9.8
영국	5.5 [2010]	6.1
미국	31.5 [2010]	38.1
평균(27)	12.9	15.9
최근평균(28)		15.7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7〉 MRI 장비 보유대수, 2014년

(단위: 대수/인구1,000,000명)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2015), 그리스(2013), 헝가리(2013), 이탈리아(2013), 뉴질랜드(2015)

## 18. 의학계열 졸업자

- 우리나라의 의학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8.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1.4명 보다 적었음
  - 2009년 한국의 의학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9.1명이었으나, 5년 사이 0.9명 줄어들었음. 같은 기간 OECD 평균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1.6명 늘어남
- OECD 회원국 중에는 아일랜드(21.9명), 덴마크(19.5명), 호주(15.3명)가 인구 10만 명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가 15명 이상으로 많음
  - 룩셈부르크(0.0명), 일본(6.0명)은 인구 10만 명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가 6명 이하로 적음

〈표 18〉 의학계열 졸업자수

(단위: 명/인구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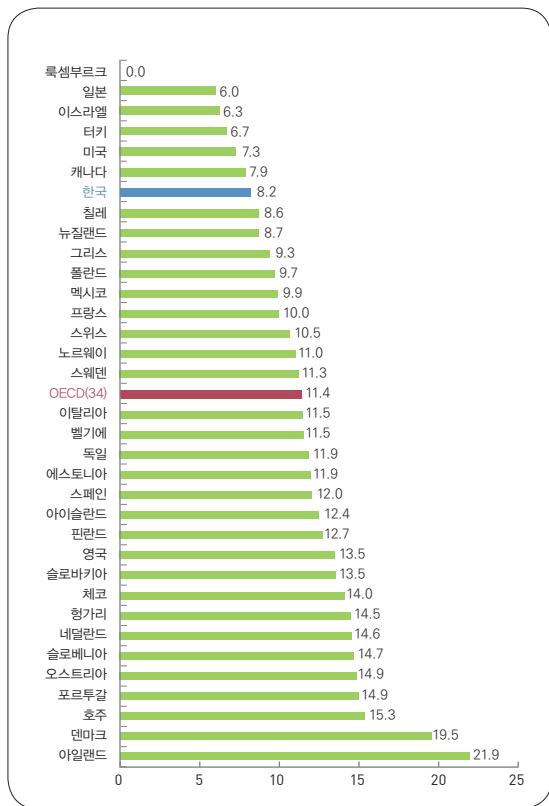
	2009	2014
호주	10.9	15.3
오스트리아	20.7	14.9 [2013]
벨기에	7.9	11.5
캐나다	7.0	7.9
칠레	6.5	8.6
체코	12.6	14.0
덴마크	21.8	19.5
에스토니아	9.0	11.9
핀란드	9.4	12.7
프랑스	6.9	10.0 [2013]
독일	12.3	11.9
그리스	11.6	9.3 [2013]
헝가리	9.2	14.5
아이슬란드	11.6	12.4 [2013]
아일랜드	15.9	21.9
이스라엘	4.0	6.3
이탈리아	11.3	11.5
일본	5.9	6.0
<b>한국</b>	<b>9.1</b>	<b>8.2</b>
룩셈부르크	0.0	0.0
멕시코	11.2	9.9 [2013]
네덜란드	12.6	14.6
뉴질랜드	7.8	8.7
노르웨이	10.7	11.0
폴란드	7.3	9.7
포르투갈	10.7	14.9
슬로바키아	7.8	13.5
슬로베니아	7.9	14.7
스페인	8.4	12.0
스웨덴	10.7	11.3
스위스	9.4	10.5
터키	7.1	6.7
영국	13.2	13.5
미국	6.7	7.3 [2013]
<b>평균(34)</b>	<b>9.8</b>	<b>11.4</b>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8] 의학계열 졸업자수, 2014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오스트리아(2013), 프랑스(2013), 그리스(2013), 아이슬란드(2013), 멕시코(2013), 미국(2013)

## 제Ⅳ장 보건의료이용

19. 의사의 외래진료
20. 치과외사의 외래진료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22. 제왕절개 건수
23. 신장이식 건수

## IV. 보건의료이용



### 19. 의사의 외래진료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9회로 OECD 평균(7.0회)보다 2.1배 많음
  - 2009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2.9회로 5년간 2.0회 늘어난 반면, OECD 평균은 2009년 6.7회에서 2014년 7.0회로 증가함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의사의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12.8회(2013년)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진찰 횟수를 기록하였음
  -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6회), 스웨덴(2.9회)은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횟수가 3.0회 미만으로 낮았음

〈표 19〉 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건수(국민1인당)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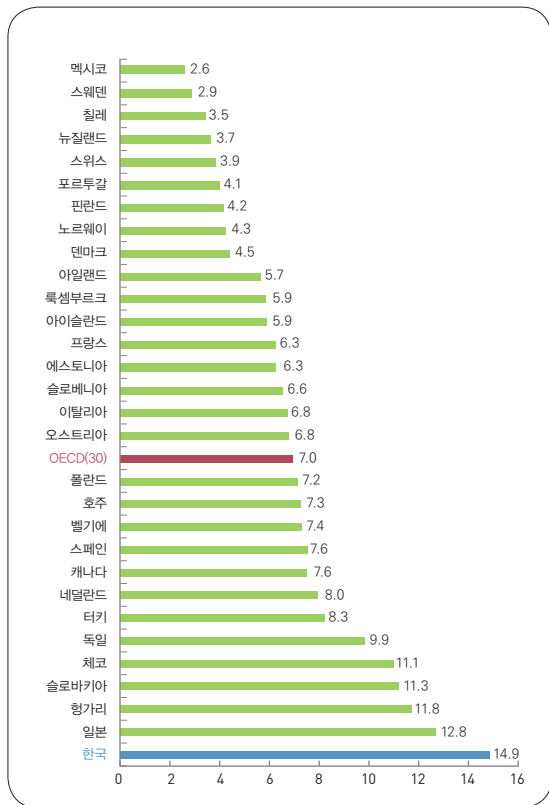
	2009	2014
호주	6.6	7.3
오스트리아	6.9	6.8
벨기에	7.6	7.4 [2011]
캐나다	7.6	7.6 [2013]
칠레	3.2	3.5 [2013]
체코	11.2	11.1 [2013]
덴마크	4.6	4.5
에스토니아	6.3	6.3
핀란드	4.2	4.2
프랑스	6.7	6.3
독일	9.2	9.9
그리스	4.0 [2006]	-
헝가리	11.9	11.8
아이슬란드	6.4	5.9
아일랜드	3.8 [2010]	5.7 [2015]
이스라엘	6.2	-
이탈리아	-	6.8 [2013]
일본	13.1	12.8 [2013]
<b>한국</b>	<b>12.9</b>	<b>14.9</b>
룩셈부르크	6.1	5.9
멕시코	2.9	2.6
네덜란드	5.7	8.0
뉴질랜드	4.1 [2007]	3.7 [2012]
노르웨이	4.0	4.3
폴란드	6.8	7.2
포르투갈	4.0	4.1 [2012]
슬로바키아	11.6	11.3
슬로베니아	6.6	6.6
스페인	7.5	7.6 [2013]
스웨덴	2.9	2.9
스위스	4.0 [2007]	3.9 [2012]
터키	7.3	8.3
영국	5.0	-
미국	4.1	-
평균(29)	6.7	7.0
최근평균(30)		7.0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9) 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건수(국민1인당), 2014년

(단위: 건)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벨기에(2011), 캐나다(2013), 칠레(2013), 체코(2013), 아일랜드(2015), 이탈리아(2013), 일본(2013), 뉴질랜드(2012), 포르투갈(2012), 스페인(2013), 스위스(2012)

## 20. 치과의사의 외래진료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치과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연간 횟수는 1.5회로 OECD 회원국 평균(1.1회)보다 많음
  - 2009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치과의사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6회로 2014년까지 0.1회 줄어들었고, OECD 회원국 평균 횟수는 2009년과 2014년이 동일함
- OECD 회원국 중 일본은 국민 1인당 치과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3.2회(2013년)로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2.6회)도 연간 2회 이상의 높은 치과의사 진료 횟수를 기록하였음
  - 포르투갈(0.0회, 2012년), 멕시코(0.1회), 터키(0.5회), 이탈리아(0.5회, 2013년)는 국민 1인당 치과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0.5회 이하로 매우 낮았음

〈표 20〉 치과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국민 1인당)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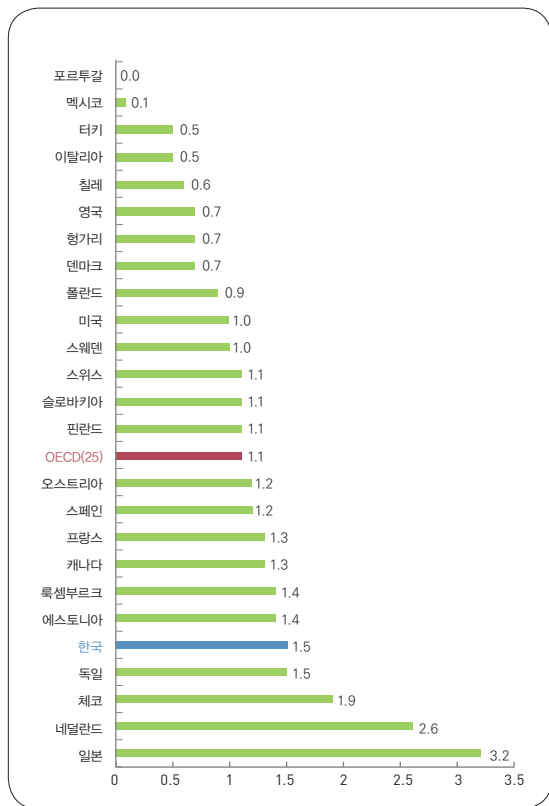
	2009	2014
호주	1.5 [2010]	-
오스트리아	1.3	1.2
벨기에	2.5	-
캐나다	1.3	1.3
칠레	0.7	0.6 [2013]
체코	1.8	1.9 [2013]
덴마크	0.9	0.7
에스토니아	1.4	1.4
핀란드	1.3	1.1
프랑스	1.7	1.3
독일	1.4	1.5
그리스	-	-
헝가리	0.8	0.7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0.7 [2010]	-
이스라엘	2.3	-
이탈리아	-	0.5 [2013]
일본	3.1	3.2 [2013]
<b>한국</b>	<b>1.6</b>	<b>1.5</b>
룩셈부르크	1.5	1.4
멕시코	0.2	0.1
네덜란드	2.1	2.6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
폴란드	0.8	0.9
포르투갈	0.0	0.0 [2012]
슬로바키아	1.3	1.1
슬로베니아	-	-
스페인	1.6	1.2 [2011]
스웨덴	1.0	1.0
스위스	1.2 [2007]	1.1 [2012]
터키	0.3	0.5
영국	0.7	0.7
미국	1.0	1.0 [2013]
평균 (24)	1.2	1.2
최근평균 <sup>2)</sup> (25)		1.1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20〉 치과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국민 1인당), 2014년

(단위: 건)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칠레(2013), 체코(2013), 이탈리아(2013), 일본(2013), 포르투갈(2012), 스페인(2011), 스위스(2012), 미국(2013)

##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 우리나라의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환자 1인당 입원 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머무르는 일수의 평균)는 16.5일로 OECD 회원국 평균(7.2일)보다 2.3배 깊
  - 2009년 우리나라의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는 15.7일로 2014년까지 0.8일이 증가함. OECD 평균은 2009년과 2014년 사이 0.3일 줄어듦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가 가장 길고 다음으로 핀란드가 10.5일로 평균병원재원일수가 10일 이상인 국가임
  - 멕시코(3.6일)와 터키(4.0일)는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가 5일 이하로 OECD 회원국 중 짧은 재원일수를 기록함

〈표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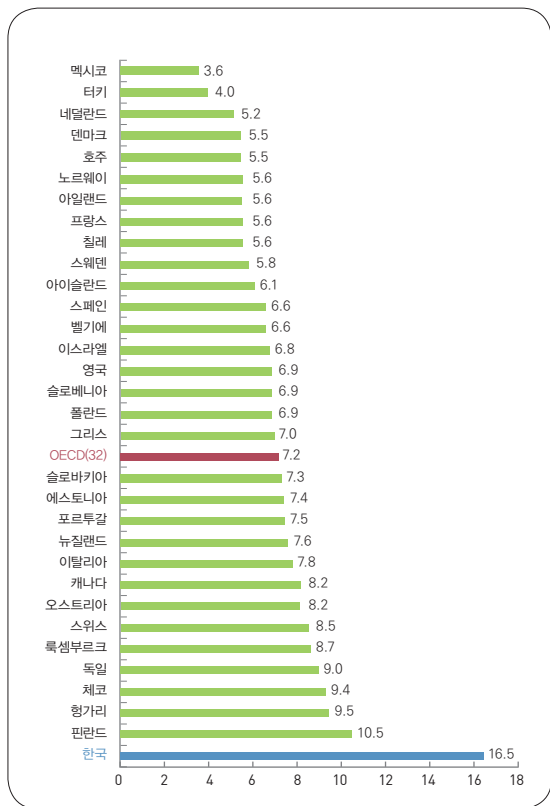
(단위: 일)

	2009	2014
호주	5.9	5.5 [2013]
오스트리아	7.8	8.2
벨기에	7.0	6.6 [2013]
캐나다	7.7	8.2 [2013]
칠레	5.6	5.6 [2013]
체코	10.2	9.4
덴마크	6.1	5.5 [2015]
에스토니아	7.6	7.4
핀란드	12.5	10.5
프랑스	5.6	5.6
독일	9.7	9.0
그리스	6.7	7.0 [2011]
헝가리	9.2	9.5
아이슬란드	5.8	6.1
아일랜드	6.1	5.6
이스라엘	6.7	6.8
이탈리아	7.6	7.8
일본	-	-
<b>한국</b>	<b>15.7</b>	<b>16.5</b>
룩셈부르크	8.6	8.7
멕시코	3.9	3.6
네덜란드	5.8	5.2 [2012]
뉴질랜드	9.0	7.6 [2013]
노르웨이	4.6	5.6
폴란드	7.7	6.9
포르투갈	7.3	7.5
슬로바키아	7.7	7.3
슬로베니아	7.3	6.9
스페인	6.9	6.6
스웨덴	6.3	5.8
스위스	9.2	8.5
터키	4.3	4.0
영국	7.5	6.9
미국	4.9	-
<b>평균(32)</b>	<b>7.5</b>	<b>7.2</b>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2014년

(단위: 일)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호주(2013), 벨기에(2013), 캐나다(2013), 칠레(2013), 덴마크(2015), 그리스(2011), 네덜란드(2012), 뉴질랜드(2013)

## 22. 제왕절개 건수

- 우리나라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367.8건(2013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64.7건보다 1.4배 많음
  - 2009년과 2014년 사이 OECD 평균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18.1건 늘어났으나, 우리나라는 2009년과 2013년 사이 16.5건 늘어남
- OECD 회원국 중 터키는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가 51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367.8건, 2013년)이 그 뒤를 이었음
  - 핀란드(157.7건)는 OECD 회원국 중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가 가장 낮았으며, 이스라엘(158.3건, 2013년)도 160건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표 22〉 제왕절개 건수

(단위: 건/출생아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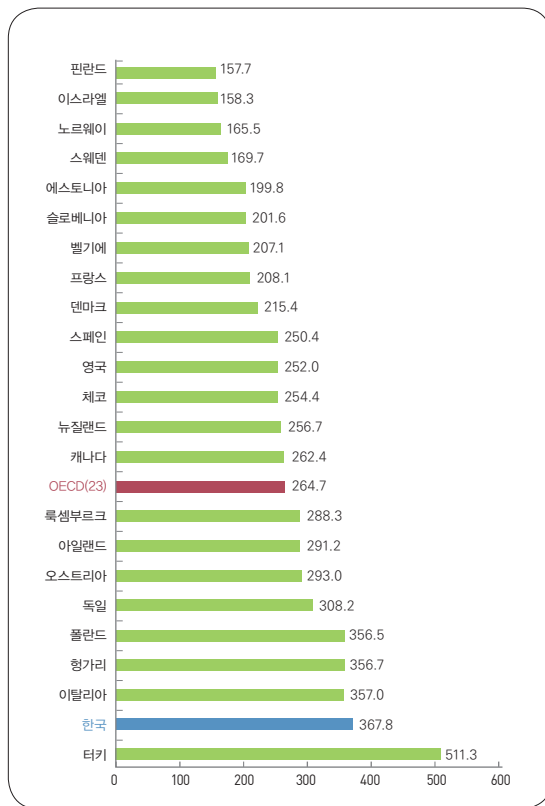
	2009	2014
호주	-	-
오스트리아	281.7	293.0
벨기에	193.3	207.1 [2013]
캐나다	261.7	262.4 [2011]
칠레	-	-
체코	212.2	254.4
덴마크	218.8	215.4
에스토니아	206.9	199.8
핀란드	157.5	157.7
프랑스	207.7	208.1 [2013]
독일	299.7	308.2
그리스	-	-
헝가리	313.1	356.7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259.2	291.2
이스라엘	175.4	158.3 [2013]
이탈리아	387.6	357.0
일본	-	-
<b>한국</b>	<b>351.3</b>	<b>367.8 [2013]</b>
룩셈부르크	260.9	288.3
멕시코	-	-
네덜란드	148.4	-
뉴질랜드	236.2	256.7 [2013]
노르웨이	-	165.5
폴란드	228.3	356.5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177.0	201.6 [2013]
스페인	250.1	250.4
스웨덴	169.3	169.7
스위스	325.2 [2008]	-
터키	441.9	511.3
영국	236.8	252.0
미국	-	-
평균 <sup>1)</sup> (22)	251.2	269.3
최근평균 <sup>2)</sup> (23)		264.7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22〉 제왕절개 건수, 2014년

(단위: 건/출생아1,000명)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벨기에(2013), 캐나다(2011), 프랑스(2013), 이스라엘(2013), 한국(2013), 뉴질랜드(2013), 슬로베니아(2013)

## 23. 신장이식 건수

-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신장이식 건수는 3.6건으로 OECD 회원국 평균(3.6건)과 같음
  - 2009년 우리나라의 신장이식 건수는 2.5건으로 5년 사이 1.4배 증가한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신장이식 건수는 같은 기간 1.1배 증가하였음
- OECD 회원국 중 신장이식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스페인으로 인구 10만 명당 5.8건을 기록하였고, 노르웨이(5.5건), 미국(5.4건), 덴마크(5.2건), 오스트리아(5.0건)도 인구 10만 명당 5건 이상의 높은 신장이식 건수를 기록함
  - 룩셈부르크(0.0건, 2013년), 일본(1.3건)은 인구 10만 명당 신장이식 건수가 2건 미만으로 낮았음

〈표 23〉 신장이식 건수

(단위: 건/인구100,000명)

	2009	2014
호주	3.8	3.9 [2013]
오스트리아	5.1	5.0
벨기에	4.6	4.6 [2013]
캐나다	3.8	4.1 [2013]
칠레	1.5	2.7 [2013]
체코	3.6	4.8
덴마크	4.7	5.2
에스토니아	4.0	2.7
핀란드	3.3	4.3
프랑스	4.2	4.7
독일	3.4	2.6
그리스	1.5	-
헝가리	2.6	4.0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3.8	3.3
이스라엘	2.2	2.6
이탈리아	3.0	3.0
일본	1.0	1.3
<b>한국</b>	<b>2.5</b>	<b>3.6</b>
룩셈부르크	0.4	0.0
멕시코	2.1	2.3 [2013]
네덜란드	4.9	-
뉴질랜드	2.8	2.7 [2013]
노르웨이	-	5.5
폴란드	1.0	2.6
포르투갈	5.5	4.3
슬로바키아	3.2	2.3
슬로베니아	2.2	2.7
스페인	5.0	5.8
스웨덴	4.2	4.8
스위스	3.8 [2008]	-
터키	3.3	3.8
영국	3.7	4.0
미국	5.5	5.4
평균 <sup>1)</sup> (29)	3.3	3.6
최근평균 <sup>2)</sup> (30)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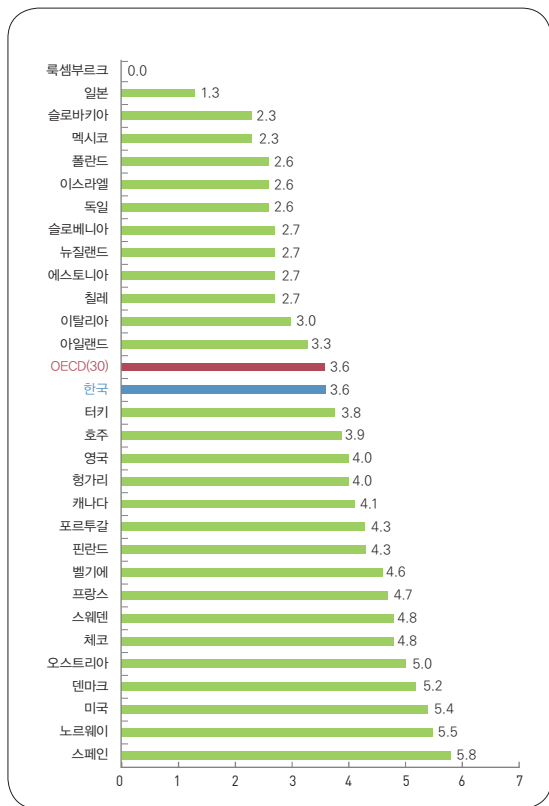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23] 신장이식 건수, 2014년

(단위: 건/인구100,000명)



## 제V장 보건의료비용

- 24. GDP대비 경상의료비
- 25.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율
-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
-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등 지출 비율
-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호주(2013), 벨기에(2013), 캐나다(2013), 칠레(2013), 멕시코(2013), 뉴질랜드(2013)

## V. 보건의료비용



### 24. GDP 대비 경상의료비\*

-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대비 7.1%로 OECD 회원국 평균(9.1%)보다 낮음
    - 2009년에 비해 2014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경상의료비는 0.8%p 증가하여,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0.1%p)보다 높은 증가폭을 기록함
    - 우리나라의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은 GDP대비 경상의료비가 16.6%로 가장 높은 지출 비율을 기록하였음
    - OECD 회원국 중 터키(5.1%), 멕시코(5.8%), 에스토니아(6.1%), 룩셈부르크(6.3%), 폴란드(6.4%)는 GDP대비 경상의료비가 7% 미만으로 아주 낮은 그룹에 해당됨
- \*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에 대한 지출 비용으로 '개인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로 구성됨. OECD는 2015년부터 의료비 총액규모를 국민의료비(경상의료비+자본투자) 대신 경상의료비로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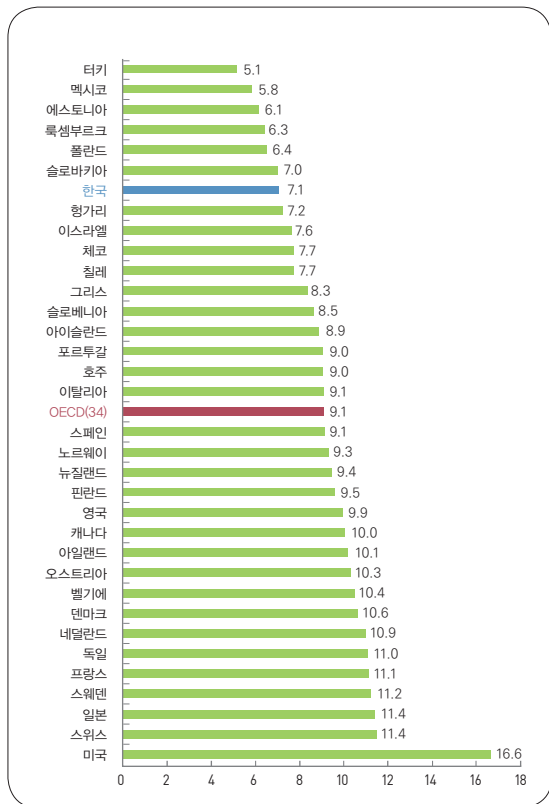
〈표 24〉 GDP 대비 경상의료비

(단위: %)

	2009	2014
호주	8.6	9.0
오스트리아	10.1	10.3
벨기에	10.1	10.4
캐나다	10.6	10.0
칠레	7.1	7.7
체코	7.3	7.7
덴마크	10.7	10.6
에스토니아	6.5	6.1
핀란드	8.9	9.5
프랑스	10.8	11.1
독일	11.1	11.0
그리스	9.8	8.3
헝가리	7.3	7.2
아이슬란드	9.1	8.9
아일랜드	10.5	10.1
이스라엘	7.0	7.6
이탈리아	9.0	9.1
일본	9.4	11.4
<b>한국</b>	<b>6.3</b>	<b>7.1</b>
룩셈부르크	7.5	6.3
멕시코	6.4	5.8
네덜란드	10.3	10.9
뉴질랜드	9.7	9.4
노르웨이	9.1	9.3
폴란드	6.6	6.4
포르투갈	9.9	9.0
슬로바키아	8.0	7.0
슬로베니아	8.6	8.5
스페인	9.0	9.1
스웨덴	8.9	11.2
스위스	10.4	11.4
터키	5.8	5.1
영국	8.7	9.9
미국	16.4	16.6
<b>평균(34)</b>	<b>9.0</b>	<b>9.1</b>

(그림 24) GDP 대비 경상의료비, 2014년

(단위: %)



## 25. 경상의료비 중 정부 · 의무가입보험재원 비율

-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정부 · 의무가입보험재원 비율은 56.5%로 OECD 회원국 평균(73.1%)보다 낮음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정부 · 의무가입보험재원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59.1%까지 늘어남. 그러나 OECD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함

〈경상의료비 중 정부 · 의무가입보험재원 비율(%)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58.5	58.6	58.2	59.0	59.1	58.3	57.0	56.6	56.5
OECD 평균	71.8	71.9	72.8	73.7	73.5	73.5	73.0	72.7	73.1

- OECD 회원국 중에서 경상의료비 중 정부 · 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85.1%), 독일(84.6%), 일본(84.6%), 덴마크(84.2%), 룩셈부르크(83.6%), 체코(83.5%), 스웨덴(83.4%), 아이슬란드(81.0%), 네덜란드(80.6%), 슬로바키아(80.2%)로 80% 이상을 정부 · 의무가입보험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음

– 미국(49.3%)은 경상의료비 중 정부 · 의무가입보험재원의 비중이 50% 미만으로 낮은 국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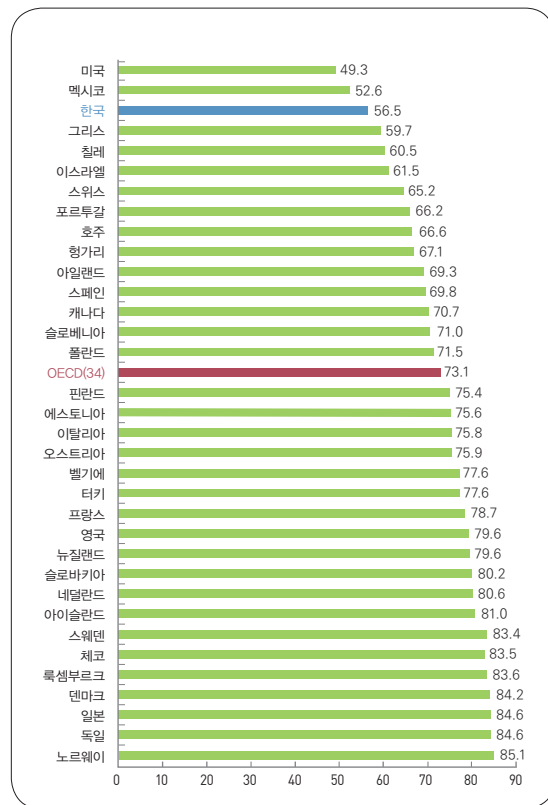
〈표 25〉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율

(단위: %)

	2009	2014
호주	69.3	66.6
오스트리아	76.5	75.9
벨기에	77.2	77.6
캐나다	70.3	70.7
칠레	45.2	60.5
체코	83.3	83.5
덴마크	84.5	84.2
에스토니아	77.7	75.6
핀란드	75.1	75.4
프랑스	78.3	78.7
독일	83.9	84.6
그리스	69.5	59.7
헝가리	68.3	67.1
아이슬란드	82.0	81.0
아일랜드	77.1	69.3
이스라엘	61.2	61.5
이탈리아	78.3	75.8
일본	81.3	84.6
<b>한국</b>	<b>59.0</b>	<b>56.5</b>
룩셈부르크	85.7	83.6
멕시코	48.5	52.6
네덜란드	86.8	80.6
뉴질랜드	80.7	79.6
노르웨이	84.4	85.1
폴란드	71.7	71.5
포르투갈	69.9	66.2
슬로바키아	73.5	80.2
슬로베니아	73.1	71.0
스페인	75.4	69.8
스웨덴	82.0	83.4
스위스	65.5	65.2
터키	80.5	77.6
영국	83.3	79.6
미국	48.1	49.3
<b>평균(34)</b>	<b>73.7</b>	<b>73.1</b>

〈그림 25〉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율, 2014년

(단위: %)



##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

-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로 OECD 평균인 19.6%에 1.9배가량 높았음
  - 2009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가계지출비율은 36.4%로 5년 사이 0.4%p 증가함.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0.5%p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로 40.8%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부담 비율을 기록하였음
  - OECD 회원국 중 프랑스(7.0%)만이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10% 미만으로 낮았음

〈표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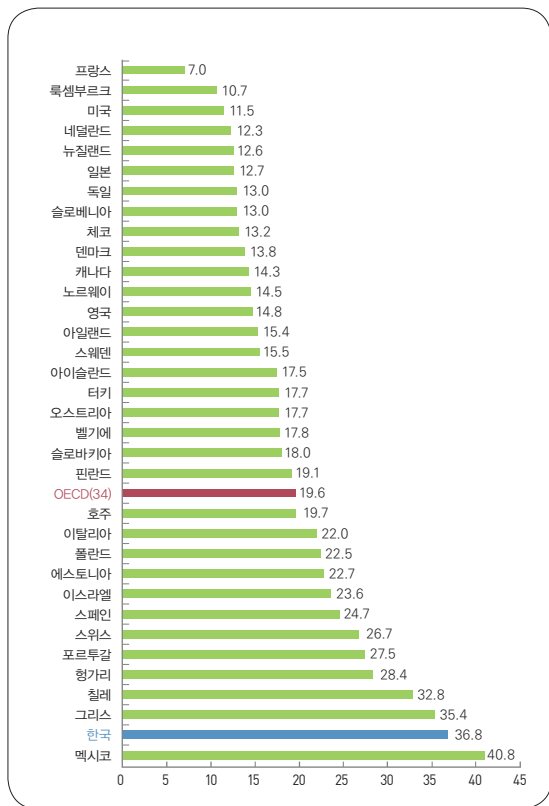
(단위: %)

	2009	2014
호주	19.1	19.7 [2013]
오스트리아	17.4	17.7
벨기에	18.5	17.8
캐나다	15.0	14.3
칠레	35.2	32.8
체코	15.1	13.2
덴마크	13.7	13.8
에스토니아	20.4	22.7
핀란드	19.6	19.1
프랑스	7.8	7.0
독일	13.9	13.0
그리스	28.4	35.4
헝가리	26.2	28.4
아이슬란드	16.6	17.5
아일랜드	12.7	15.4
이스라엘	25.4	23.6
이탈리아	20.7	22.0
일본	15.2	12.7 [2013]
<b>한국</b>	<b>36.4</b>	<b>36.8</b>
룩셈부르크	9.9	10.7
멕시코	45.7	40.8
네덜란드	5.3	12.3
뉴질랜드	12.8	12.6 [2013]
노르웨이	15.3	14.5
폴란드	24.4	22.5
포르투갈	24.6	27.5
슬로바키아	22.4	18.0
슬로베니아	12.8	13.0
스페인	19.5	24.7
스웨덴	16.9	15.5
스위스	24.7	26.7
터키	14.5	17.7
영국	9.5	14.8
미국	12.5	11.5
<b>평균(34)</b>	<b>19.1</b>	<b>19.6</b>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 2014년

(단위: %)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호주(2013), 일본(2013), 뉴질랜드(2013)

##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율

-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은 20.6%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 15.9%보다 높았음
  - 우리나라의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율은 2009년 23.5%로, 2014년까지 2.9%p가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9%p 줄어듦
- OECD회원국 중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로 30.2%를 기록하였으며, 그리스(28.4%)도 높은 수치를 나타냄
  - 덴마크(6.7%), 노르웨이(7.5%), 네덜란드(7.6%)는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율이 8% 미만으로 낮았음

〈표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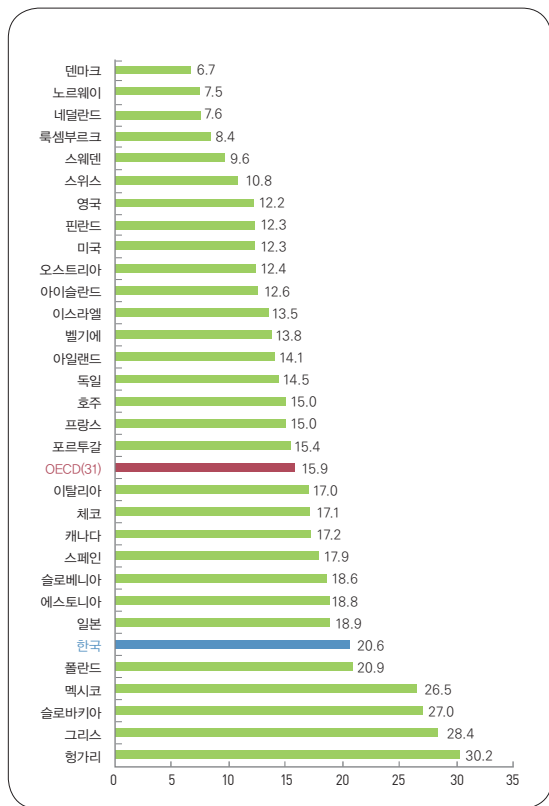
	2009	2014	
호주	15.5	15.0	[2013]
오스트리아	12.5	12.4	
벨기에	15.9	13.8	
캐나다	17.8	17.2	
칠레	-	-	
체코	22.1	17.1	
덴마크	7.6	6.7	
에스토니아	20.0	18.8	
핀란드	14.0	12.3	
프랑스	16.6	15.0	
독일	15.3	14.5	
그리스	29.7	28.4	
헝가리	32.9	30.2	
아이슬란드	15.7	12.6	
아일랜드	15.1	14.1	
이스라엘	14.0	13.5	[2012]
이탈리아	19.0	17.0	
일본	21.0	18.9	[2013]
<b>한국</b>	<b>23.5</b>	<b>20.6</b>	
룩셈부르크	9.9	8.4	
멕시코	31.3	26.5	
네덜란드	10.0	7.6	
뉴질랜드	10.4	-	[2007]
노르웨이	7.6	7.5	
폴란드	24.6	20.9	
포르투갈	20.2	15.4	
슬로바키아	29.4	27.0	
슬로베니아	19.7	18.6	
스페인	18.3	17.9	
스웨덴	13.5	9.6	
스위스	10.1	10.8	
터키	-	-	
영국	-	12.2	
미국	12.9	12.3	
평균 (30)	17.9	16.0	
<b>최근평균(31)</b>		<b>15.9</b>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율, 2014년

(단위: %)



주) 1. OECD: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호주(2013), 이스라엘(2012), 일본(2013)

##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를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인 US\$ PPP(구매력평가환율, Purchasing Power Parity)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2,361 US\$ PPP로 OECD 회원국 평균 3,689 US\$ PPP보다 1,328 US\$ PPP 낮았음

– 2009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1,791 US\$ PPP로 5년 사이 1.3배 증가하였음.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1.2배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9,024 US\$ PPP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4배 많았음

– 터키(990 US\$ PPP), 멕시코(1,053 US\$ PPP)는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이 1,500 US\$ PPP 미만으로 낮은 수준임

〈표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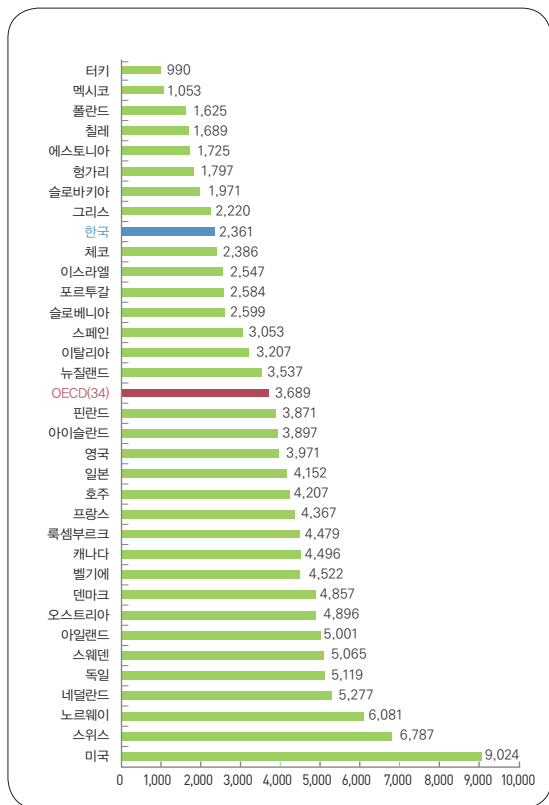
(단위: US\$ PPP)

	2009	2014
호주	3,564	4,207
오스트리아	4,120	4,896
벨기에	3,805	4,522
캐나다	4,108	4,496
칠레	1,150	1,689
체코	1,974	2,386
덴마크	4,248	4,857
에스토니아	1,320	1,725
핀란드	3,337	3,871
프랑스	3,774	4,367
독일	4,131	5,119
그리스	2,991	2,220
헝가리	1,522	1,797
아이슬란드	3,624	3,897
아일랜드	4,408	5,001
이스라엘	1,943	2,547
이탈리아	3,065	3,207
일본	2,999	4,152
<b>한국</b>	<b>1,791</b>	<b>2,361</b>
룩셈부르크	4,386	4,479
멕시코	921	1,053
네덜란드	4,550	5,277
뉴질랜드	2,970	3,537
노르웨이	5,094	6,081
폴란드	1,270	1,625
포르투갈	2,589	2,584
슬로바키아	1,850	1,971
슬로베니아	2,355	2,599
스페인	2,945	3,053
스웨덴	3,547	5,065
스위스	5,184	6,787
터키	841	990
영국	3,150	3,971
미국	7,685	9,024
<b>평균(34)</b>	<b>3,153</b>	<b>3,689</b>



[그림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2014년

(단위: US\$ PPP)



## 제Ⅵ장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29. 의약품 소비량

30. 의약품 판매액

## VI.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 29. 의약품 소비량

- ATC(WHO 의약품 분류 기준) 대분류별로 볼 때 2014년 우리나라의 의약품 소비량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전신성 항감염약을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의약품 소비량은 OECD 회원국의 최고치인 422,9DDD (Defined Daily Dose · 일일 상용량)를 기록함
  -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전신성 호르몬제, 전신성 항감염약, 근골격계를 제외한 모든 의약품의 소비량이 OECD 회원국 평균 보다 낮았음
  - 우리나라의 항생제(전신성항균물질, J01)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31.7DDD로 OECD 평균(20.8DDD)에 비해 높았음

〈표 29〉 의약품 소비량, 2014년

(단위: DDD\*/1,000인/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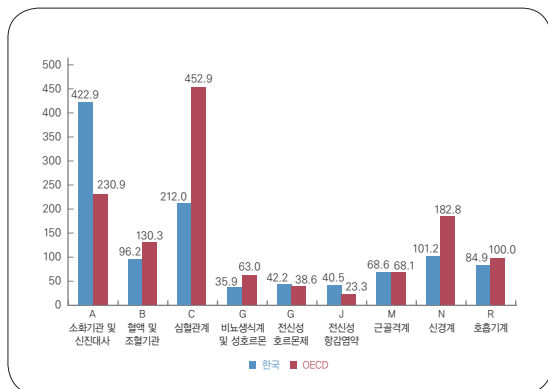
ATC 항목	항목명	한국	OECD 회원국(한국 포함)		
			(최저~최고)	평균값	중앙값
A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422.9	117.6 ~ 422.9	230.9	225.9
A02A	제산제	4.5	0.0 ~ 7.5	1.9	1.0
A02B	위궤양 치료제	45.2	38.9 ~ 125.2	74.1	66.4
A10	당뇨병 치료제	60.8	39.5 ~ 88.2	65.7	64.9
B	혈액 및 조혈기관	96.2	48.3 ~ 266.7	130.3	123.4
C	심혈관계	212.0	158.9 ~ 718.6	452.9	419.8
C01A	강심배당체	1.3	0.5 ~ 4.6	2.6	2.5
C01B	항부정맥약	1.0	0.8 ~ 10.2	4.3	3.2
C02	혈압강하제	2.3	1.1 ~ 33.6	8.4	5.8
C03	이노제	17.9	7.0 ~ 94.0	42.2	43.6
C07	베타 차단제	13.4	13.4 ~ 88.9	44.3	41.4
C08	칼슘 차단제	54.0	24.7 ~ 89.1	56.7	54.4
C09	레닌 인지요텐산염	45.4	45.4 ~ 359.0	172.8	168.7
C10	지질완화 약물	52.1	18.3 ~ 152.2	98.5	104.3
G	비노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35.9	19.8 ~ 134.0	63.0	50.2
G03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9.6	3.5 ~ 84.5	36.2	28.0
H	전신성 호르몬제	42.2	15.9 ~ 85.1	38.6	39.5
J	전신성 항감염약	40.5	12.2 ~ 42.6	23.3	22.2
J01	전신성 항균물질	31.7	9.4 ~ 41.1	20.8	21.0
M	근골격계	68.6	27.5 ~ 145.0	68.1	65.6
M01A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46.1	10.3 ~ 79.0	43.4	45.9
N	신경계	101.2	79.3 ~ 357.0	182.8	162.7
N02	진통제	13.6	4.7 ~ 90.0	30.6	22.8
N05B	불안제거약	13.7	2.1 ~ 97.2	21.2	14.9
N05C	최면제 및 진정제	10.1	0.0 ~ 69.5	20.5	18.0
N06A	항우울제	18.0	12.8 ~ 118.0	59.0	55.4
R	호흡기계	84.9	33.8 ~ 195.0	100.0	83.4
R03	기도폐색질환약	14.1	14.1 ~ 94.7	43.1	41.2

\* DDD (Defined Daily Dose)란 약품의 일일상용량을 의미함

\* 2014년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함

(그림 29) 의약품 소비량, 2014년

(단위: DDD/1,000인/1일)



주) DDD (Defined Daily Dose)란 약품의 일일사용량을 의미함

### 30. 의약품 판매액

-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한 2014년 우리나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음
  -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혈액 및 조혈기관, 심혈관계, 전신성 항감염약, 근골격계 등의 의약품은 우리나라의 판매액이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음(1인당 US\$, PPP 기준)
  - 비노생식계 및 성호르몬, 전신성 호르몬제, 신경계, 호흡기계 등은 우리나라의 판매액이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음

〈표 30-1〉 의약품 판매액(US\$), 2014년

(단위: 1인당 US\$)

ATC 항목	항목명	한국	OECD 회원국(한국 포함)		
			(최저~최고)	평균값	중앙값
	총판매	445.7	92.9 ~ 790.6	433.1	439.4
A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66.1	4.7 ~ 115.0	52.5	51.6
A02A	제산제	1.0	0.0 ~ 2.0	0.6	0.5
A02B	위궤양 치료제	15.5	0.5 ~ 28.9	10.8	9.2
A10	당뇨병 치료제	13.0	1.6 ~ 38.5	21.4	21.0
B	혈액 및 조혈기관	37.1	2.6 ~ 59.9	29.9	31.3
C	심혈관계	55.7	2.9 ~ 116.2	56.5	53.7
C01A	강심배당체	0.0	0.0 ~ 0.6	0.2	0.1
C01B	항부정맥약	0.2	0.0 ~ 1.9	0.9	0.9
C02	혈압강하제	0.6	0.2 ~ 6.6	2.4	2.3
C03	이뇨제	0.4	0.1 ~ 7.2	3.1	2.9
C07	베타 차단제	2.4	0.1 ~ 11.0	5.5	5.6
C08	칼슘 차단제	7.2	0.3 ~ 13.9	4.2	4.0
C09	레닌 인지오텐산약물	20.5	1.0 ~ 44.4	17.6	15.0
C10	지질완화 약물	18.3	0.4 ~ 42.4	15.1	11.6
G	비노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13.3	1.0 ~ 46.1	18.1	15.3
G03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3.7	0.6 ~ 20.3	8.0	6.5
H	전신성 호르몬제	4.8	0.9 ~ 17.8	9.2	10.0
J	전신성 항감염약	53.5	5.9 ~ 69.7	34.7	29.9
J01	전신성 항균물질	25.0	1.7 ~ 28.7	12.8	10.7
M	근골격계	25.5	0.9 ~ 51.1	18.5	18.4
M01A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11.5	0.2 ~ 15.7	8.3	8.4
N	신경계	37.8	3.3 ~ 139.0	70.8	69.9
N02	진통제	6.9	0.5 ~ 34.5	14.7	11.3
N05B	불안제/거약	1.2	0.1 ~ 8.4	2.8	1.9
N05C	취면제 및 진정제	0.8	0.0 ~ 11.8	2.9	1.6
N06A	항우울제	3.5	0.3 ~ 38.1	10.9	9.4
R	호흡기계	19.3	1.7 ~ 63.4	32.5	32.8
R03	기도폐색질환약	5.8	1.4 ~ 42.3	21.4	23.6
	기타*	12.1	0.0 ~ 225	114.2	132.7

\* 기타에는 모든 ATC의 투약조제료가 포함되어 있음

〈표 30-2〉 의약품 판매액(US\$, PPP),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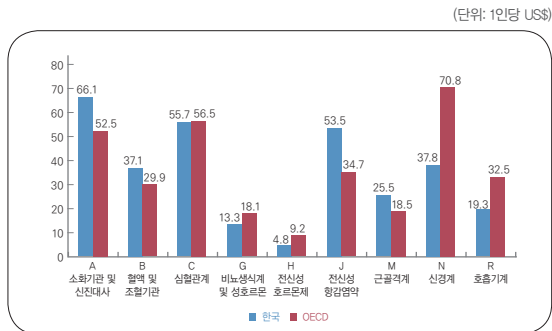
(단위: 1인당 US\$, PPP\*\*)

ATC 항목	항목명	한국	OECD 회원국(한국 포함)		
			(최저~최고)	평균값	중앙값
	총판매	532.2	150 ~ 644.4	424.2	427.7
A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78.9	8.0 ~ 95.8	52.8	50.1
A02A	제산제	1.8	0.0 ~ 1.8	0.6	0.6
A02B	위궤양 치료제	18.5	0.8 ~ 25.9	10.8	8.6
A10	당뇨병 치료제	15.5	2.7 ~ 46.2	22.3	19.6
B	혈액 및 조혈기관	44.2	4.0 ~ 74.2	30.3	31.9
C	심혈관계	66.6	4.9 ~ 143.9	58.1	62.7
C01A	강심배당체	0.0	0.0 ~ 0.5	0.2	0.2
C01B	항부정맥약	0.3	0.1 ~ 2.0	0.9	0.8
C02	혈압강하제	0.7	0.3 ~ 6.5	2.5	2.1
C03	이뇨제	0.5	0.2 ~ 7.0	3.1	3.3
C07	베타 차단제	2.9	0.2 ~ 10.7	5.7	6.1
C08	칼슘 차단제	8.6	0.5 ~ 12.5	4.3	4.0
C09	레닌 인지오텐산약물	24.5	1.7 ~ 55.1	19.1	18.1
C10	지질완화 약물	21.8	0.7 ~ 52.6	15.4	13.3
G	비노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15.9	1.7 ~ 34.5	18.0	19.3
G03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4.4	1.0 ~ 18.2	8.0	7.4
H	전신성 호르몬제	5.7	1.4 ~ 17.5	9.1	9.5
J	전신성 항감염약	63.9	9.8 ~ 82.7	34.6	35.0
J01	전신성 항균물질	29.9	2.3 ~ 35.6	13.5	10.7
M	근골격계	30.4	1.5 ~ 35.5	18.8	16.9
M01A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13.7	0.3 ~ 16.3	8.6	9.9
N	신경계	45.1	5.5 ~ 121.4	68.0	70.4
N02	진통제	8.3	0.8 ~ 26.7	14.0	13.5
N05B	불안제/거약	1.4	0.2 ~ 9.2	2.9	2.3
N05C	취면제 및 진정제	1.0	0.0 ~ 10.0	2.7	2.0
N06A	항우울제	4.2	0.5 ~ 34.2	10.9	10.0
R	호흡기계	23.1	2.9 ~ 55.1	31.9	32.6
R03	기도폐색질환약	6.9	2.3 ~ 37.3	21.1	22.9
	기타*	158.4	0.0 ~ 227.5	112.1	126.6

\* 기타에는 모든 ATC의 투약조제료가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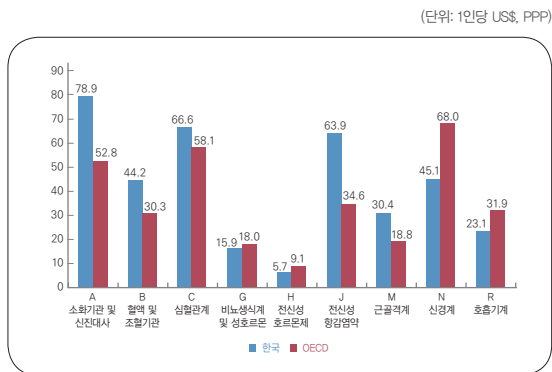
\*\* PPP (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함

[그림 30-1] 의약품 판매액(US\$), 2014년



## 제Ⅶ장 장기요양

[그림 30-2] 의약품 판매액(US\$ PPP), 2014년



주) PPP (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함

31. 장기요양병상(침상)수

## VII. 장기요양



### 31. 장기요양병상(침상)수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57.2개로 OECD 평균(49.4개)보다 다소 높음
  - 2009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34.3개로 5년 사이 약 1.7배 급격하게 늘어남.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0.5병상 줄어듦
  - 전체 장기요양 병원병상과 시설침상 중 병원병상의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음
-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벨기에로 72.1개(시설침상: 2012년)를 기록하였음
  - 터키(6.9개), 폴란드(12.5개), 이탈리아(19.3개, 2013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의 수가 20개 미만으로 OECD 회원국 중 매우 낮았음

〈표31〉 장기요양병원병상과 장기요양시설침상 수

(단위: 병상수(침상수)/65세 이상 인구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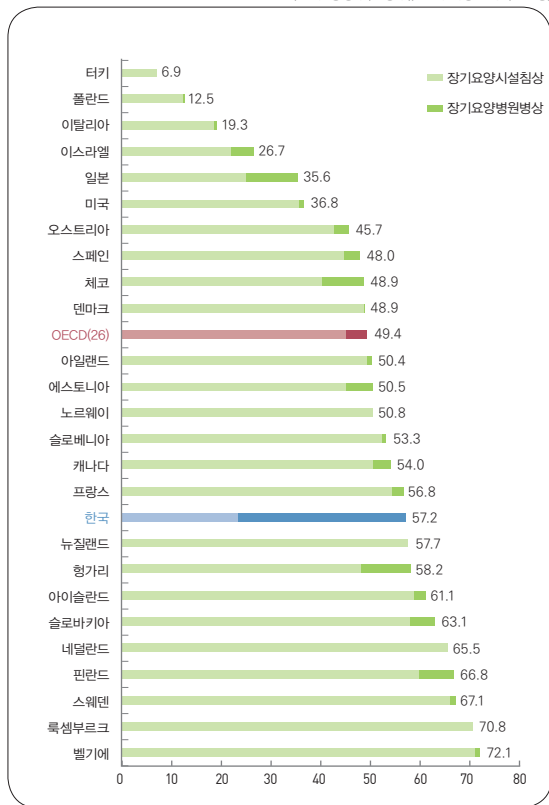
	2009			2014		
	전체	병원병상	시설침상	전체	병원병상	시설침상
호주	-	-	57.6	-	-	53.5
오스트리아	41.5	2.4	39.1	45.7	3.1	42.6
벨기에	73.3	1.0	72.3	72.1	0.9	71.2(2012)
캐나다	60.2	4.0	56.2	54.0	3.3[2013]	50.7(2012)
칠레	-	0.1	-	-	0.0	-
체코	54.3	10.4	43.9	48.9	8.9	40.0
덴마크	53.3	0.2	53.1	48.9	0.2	48.7(2011)
에스토니아	41.3	6.3	35.0	50.5	5.4	45.1
핀란드	78.9	16.2	62.7	66.8	7.1	59.7
프랑스	55.7	4.5	51.2	56.8	2.7	54.1
독일	-	-	50.5	-	-	53.1(2013)
그리스	-	-	0.7 [2010]	-	-	0.7
헝가리	60.6	10.4	50.2	58.2	10.1	48.1
아이슬란드	72.0	4.5	67.5	61.1	2.5	58.6
아일랜드	60.0	1.9	58.1	50.4	1.0	49.4
이스라엘	30.5	5.7	24.8	26.7	4.8	21.9
이탈리아	17.7	0.9	16.8	19.3	0.8[2013]	18.5(2013)
일본	37.2	12.1	25.1	35.6	10.7	24.9
<b>한국</b>	<b>34.3</b>	<b>17.0</b>	<b>17.3</b>	<b>57.2</b>	<b>33.5</b>	<b>23.7</b>
룩셈부르크	52.1	0.0	52.1	70.8	0.0	70.8(2015)
멕시코	-	-	-	-	-	-
네덜란드	69.4	0.0	69.4	65.5	0.0(2013)	65.5(2012)
뉴질랜드	-	-	60.2	57.7	0.2	57.5
노르웨이	58.3	0.0	58.3	50.8	0.0	50.8
폴란드	17.5	0.4	17.1	12.5	0.1	12.4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55.6	7.4	48.2	63.1	5.3	57.8
슬로베니아	-	0.4	-	53.3	0.8	52.5
스페인	33.0	3.6	29.4	48.0	3.1	44.9(2013)
스웨덴	82.8	1.3	81.5	67.1	0.9	66.2
스위스	-	-	72.0	-	-	66.8
터키	-	0.0	-	6.9	0.0	6.9
영국	-	-	54.6	-	-	48.7
미국	43.9	1.9	42.0	36.8	1.4(2013)	35.4
평균*(23)	51.5	4.9	46.6	51.0	4.4	46.6
최근평균*(26)				49.4	4.1	45.3

1) OECD 회원국 중 2009년 및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4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31] 장기요양병원병상과 장기요양시설침상 수, 2014년

(단위: 병상수(침상수)/65세 이상 인구1,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벨기에(시설침상:2012), 캐나다(병원병상:2013, 시설침상:2012), 덴마크(시설침상:2011), 이탈리아(병원병상:2013, 시설침상:2013), 룩셈부르크(시설침상:2015),

네덜란드(병원병상:2013, 시설침상:2012), 스페인(시설침상:2013), 영국(병원병상:2013)

## OECD Health Statistics 2016

본 책자는 OECD Health Statistics 2016에서 주요 지표만을 발췌하여 구성·편집한 자료이며, OECD 공식 번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 (044)202-22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 (044)287-8136

- 만든 곳

경성문화사 ☎(02)786-2999



